금주의 기도

모든 열방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10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7월 14일 (토) **제 168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 복음주의 미래, '다인종교회'에 있다

CT, 베일러대 사회학자들 리서치 결과 내용과 향후 과정 예측

다인종 교회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개신교회는 20년 전에 비해 거의 3배 정도로 타 인종들이 하나가 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일러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1998년에 4%에 불과했던 다인종 교회가 2012년에는 12%로 증가했고, 복음주의는 15%, 그리고 펜타코스탈 교회는 16%로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Multiracial Congregations Have Nearly Doubled, But They Still Lag Behind the Makeup of Neighborhoods). 따라서 모든 미국 교회 교인 중 20%가 다인종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Guess Who's Coming to Church: Multiracial Congregations Triple Among Protestants: Sociologists evaluate the progress and future of the evangelical push for church diversity).

대형교회, 보수 복음주의 교회일수록 다인종 예배 활성화

오래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언급대로, "주일 오전 11시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간"이다. 지금도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모두 각기 나뉘어 예배를 드린다.

학교에서 온갖 인종이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고 함께 뛰놀면서 자라난,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세대들의 눈에, 이렇게 인종별로 뚜렷하게 나뉘어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는 조금은 낯선 환경이 되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성장한 이웃과 인종적 배경이라는 상황에서 머뭇거리지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예배 현장을 찾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주도한 베일러 대학 사회학과 케빈 D. 도우터리 교수의 결론이다. 그만큼 인종이나 문화가 달라도 어떠한 변화나 적용 없이도 타 인종들과 서먹하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시대에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회학적 발견이다.

대부분의 타 인종 교회 담임목사는 아직까지 백인 목회자들이다(71%). 그러나 최근 들어 절반 정도로 감소됐다. 과거의 다인종 교회 유형은 백인교회로 흑인들이 오는 이른바 "백인 문화로의 동화"였다면, 이제는 백인 크리스천의 감소에 따른 역전 현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히스패닉, 아시안은 고출산과 이민이 증가하면서 미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 심화에 따라 교회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렇게 다인종 교회로 변한 몇몇 미국교회들을 이미 2014년에 소개했다(How Churches Are Slowly Becoming Less Segregated).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피플스처치(Peoples Church)는 십여 년 전에는 교인 모두가 백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이 백인, 1/4은 흑인, 나머지는 30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다.

〈3면으로 계속〉

2018년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개막 됐다.

성령으로! 뉴욕에 부흥의 역사를...

9일,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 개막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성회가 9일 시작됐다. 저녁 7시30분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 성회는 강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짤막한 메시지와 많은 팀들의 찬양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대회에 앞서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뉴욕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할렐루야 복음화대성회'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영적 부담감이 있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세계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큰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영훈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전할 메시지에 대해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라며, 성령 충만을 받는 설교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뉴욕의 교회와 성도들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항상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이민 생활은 사람을 때로 외롭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성도들과 동포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방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번 성회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2018년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인 남북의 통일이 정부 수립 70년 만에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세상의 정치적 협상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을 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날 저녁 성회 대회사에서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며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안디옥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뉴욕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축복과 기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347-952-5442 1-800-404-1171 E-mail:gospelmal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ever 우표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면

시 론
은희곤 목사

16면

인/터/뷰
대표 줄리엔 정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은혜 받는 습관 — 데이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 한국문서출판/류태영 외 8명
아멘 다음이 중요 하다 — 한홍/규장
살피심 — 김양재/두란노
페이버 — 하형록/청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 원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 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시 론

하나님의 기업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은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살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디즈니사가 대형 크루즈 사업을 중역회의에서 논의하던 중, 내부시설 중 도박장(Casino)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이츠 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도박장을 뺍시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도박장이 없는 크루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와이츠 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 도박장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와이츠 회장은 반드시 대안을 찾겠노라 말하고,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크루즈를 타고 가족들의 만남, 대화, 관계 회복 등등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국 월트 디즈니의 와이츠 회장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박장 없는 크루즈를 시작했고,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장보다도 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칙필레'(Chick-Fil-A)는 39개주와 워싱턴DC에 1,54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치킨을 판매하는 전국 단위의 패스트푸드 회사입니다. 2010년에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거인인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칙필레는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장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칙필레가 설립 당시인 1946년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 전국 단위 유일한 패스트푸드점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약 14%가 일요일에 나온다는 통계를 볼 때 칙필레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 점포당 매출이 많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창업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 회장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칙필레는 자신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칙필레는 '기독교 회사'로 불리우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가령 황금율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마7:12)는 말씀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실제로 칙필레에 가면 항상 상냥하게 웃는 종업원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고, 테이블마다 생화가 놓여 있으며, 6달러짜리 패스트푸드를 먹지만 고급 식당에 있는 것처럼 종업원들이 다가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늘 묻고, 여성고객들을 위해 의자를 빼주고 애완동물을 위해 치킨 조각을 주기도 합니다.

칙필레는 각 점포 '운영자' 선정이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칙필레 지점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1년 동안 최소 12번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가족관계, 지역사회 봉사, 교회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낱낱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15명 뽑는데 1,500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패스트푸드점과는 달리, 지점 운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5천 달러만 내면 나머지 땅을 사고 공사하고 장비를 들여놓는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일종의 임대형태로 들어와 운영을 하고 본사는 지점 연매출의 15%, 임대료, 그 외 나머지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지만, 각 지점의 운영자는 이렇게 해도 한 달에 평균 이상의 넉넉한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러기에 직원들의 충성도는 대단하여 이직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ABC 방송은 2009년 성경의 십계명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칙필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소개되었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며 세상 방법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알 와이츠 회장처럼, 칙필레의 트루엣 캐시 회장처럼 현실의 이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통 큰 결단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 역사하십니다.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종교적 Nones, "의미"에 굶주렸다!

처치리더스.컴, 하버드 리서치 설문 결과 바탕으로 교회 관심 촉구

하버드에서 나온 새로운 조사(American Nones Left Religion Because They "Stopped Believing")에 따르면 왜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들'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종교 소속의 한 현상에 중점을 뒀다. 종교 소속은 '기독교인', '천주교인',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로 나눴다. 가장 마지막 부류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Nones)'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종교적인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It's Time to Take Another Look at the Religious 'Nones').

하버드 대학 리서치 전문 기관 'CCES(Cooperative Congressional Election Study)' 패널 조사에서는 2010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상당기간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가능한 넓게, 2010년과 2014년의 미국 종교 소속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전체 자료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5명의 한 명 꼴로 지난 4년 간 종교 소속이 변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상당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었다. 이들 10명 중 4명꼴로 종교 소속이 바뀌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20%인 4명 중 반은 기존 종교에서 무신론과 불가지론으로 옮겨갔고, 17.3%인 나머지 상당수는 다른 곳을 옮겼거나 교회로 돌아왔다.

2010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중 13.3% 기독교인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 말고 NIP 공략...20%는 기독교로

2010년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 중 13.3%는 기독교인이 됐고, 4%는 천주교인이 됐다. 미국에서 이들은 종교 수치상 전통적으로 두 번째로 많다. CCES에 따르면, 5천5백만 미국 성인이 이에 속한다.

이 자료에 보면, 대략 1천2백만은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빠지며, 1천2백만 명 정도는 기독교나 천주교로 빠진다. CCES의 분석을 맡은 라이언 버지(Ryan Burge) 박사는 이 수치는 상당수 변덕스럽고, 또한 교회에게 큰 기회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라이언 버지 박사는 이 종교 소속 자료에 학술적, 목회적 관심을 가졌다. 박사는 현재 찰스턴에 위치한 이스턴일리노이대학(East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또한 일리노이 마운트버넌의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중종교'에 관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글을 쓰고 있다.

박사는 이 수치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처치리더스닷컴(churchleaders.com)에서 "무신론자는 대략 18%이고, 불가지론자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거의 40%가 넘는다. 여기에 가려진 경계가 있다. 한 다리는 종교에 걸쳐 있고, 다른 한 다리는 종교적이 아닌 곳에 걸쳐 있는 '양쪽에 걸쳐 있는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세 집단을 포함하는 말이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NIP(이도저도 아닌 자, nothing in particular)'이다.

"만약 종교 소속 도표를 그려야 한다면 선(line) 한 끝에 '개신교/천주교'를 그리고, 중간에 'NIP'를 넣을 것이다. 다음에 불가지론자, 그리고 선 정반대 끝에 무신론자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움직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약 20%의 NIP가 미래 어느 지점에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있다. 반면에, 불가지론자가 움직이면 이들은 NIP가 무신론자로 될 가능성이 3배가 된다. 그리고 불신론자 중 대략 4.5%만이 4년 후에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NIP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신론자들은 말 그대로 완고한 자들이다. 정확히 1.6%만이 기독교인/천주교인이 됐다.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NIP로 구분된 집단의 학술적 기술이다. 조 맥키버(Joe Mckeever) 박사는 목회자의 견해에서 또 다른 정의를 내렸다. 박사는 은퇴한 목회자이자 현재는 교회 문제에 관해서 인기 있는 블로거다.

맥키버 박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을,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분노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한 집단으로 보았다. 맥키버 박사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선교 대상을 목표로 하는 세미나를 연다면,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종교에 관해서 양면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 즉 'NIP'이다.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정말로 쓸모없다. 왜냐면 불가지론자의 95%, 무신론자의 98.5%가 기독교 밖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리고 훨씬 더 세부적으로 그 집단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출석률을 보게 되면, '한 주 안 되게, 매주, 매달, 매해, 가끔, 절대 안 온다'로 나눌 수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평소 항상 출석률로 보게 되면 '절대 안 온다'에 거의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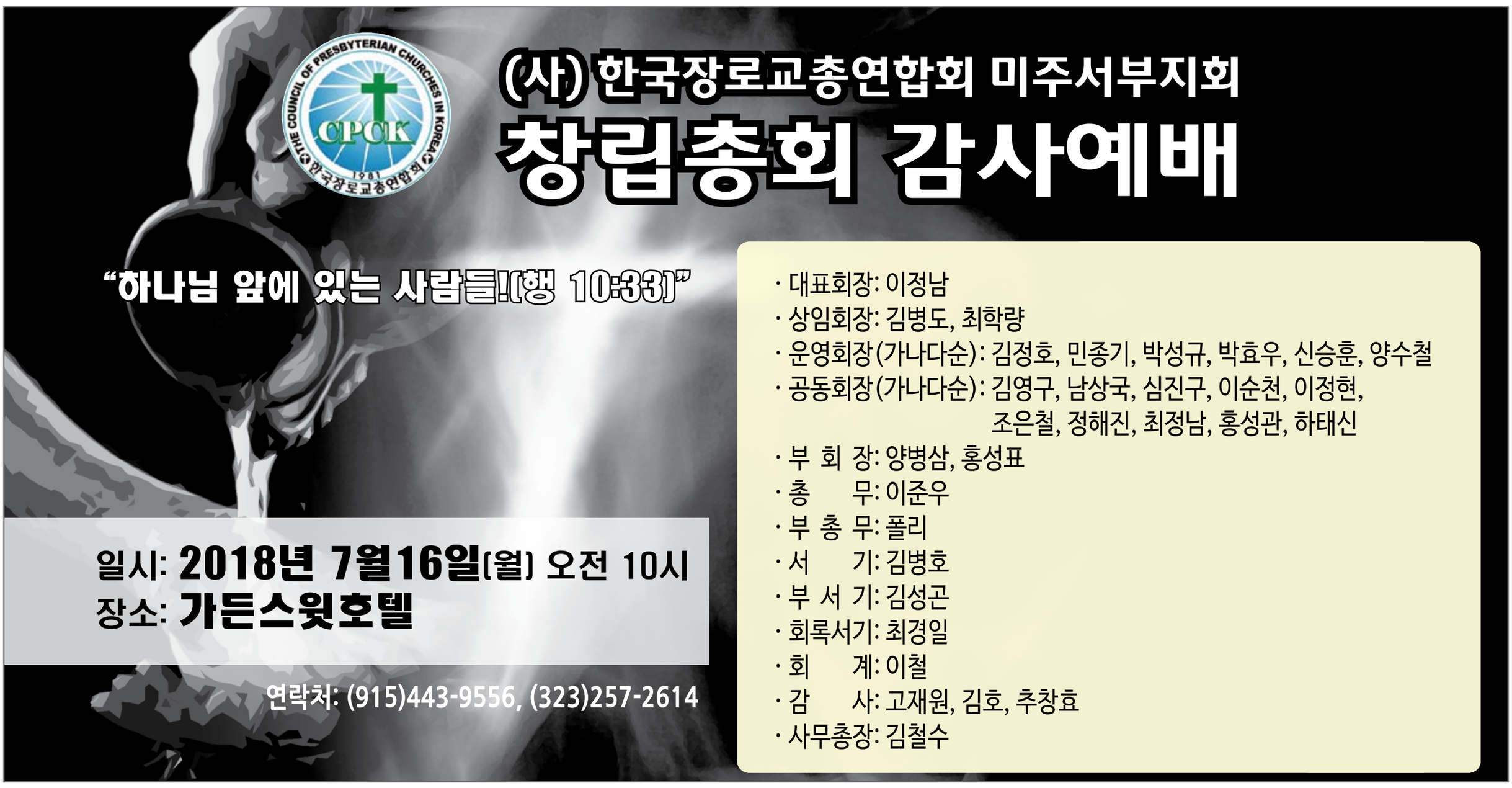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미 복음주의 미래, '다인종교회'에 있다

〈1면에서 계속〉

이 변화를 주도한 이 교회의 담임목사 크리스 비어드는 "다인종 사회에서 교회가 단일 인종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며 "교회가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으면 도시는 당연히 인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칸사스 리틀락에 소재한 교인 5천명의 한 대형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백인이다. 이곳에서 청소년 담당 목사로 활동했던 마크 디마즈는 신학적인 이유로 2001년 다인종 교회를 시작했다.

백인인 디마즈 목사가 근거로 삼은 성경구절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10절.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디마즈 목사는 "천국은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는데 왜 세상에서 교회는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미국교회의 인종적 다양화는 주로 기존의 백인교회가 다인종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교회들이 백인, 흑인 등에게 다가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DC에 있는 한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티오피아에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3000여명 규모의 교회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한피어 알리가즈는 그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만 다가서는데 이제부터는 인근 지역의 한인, 히스패닉, 흑인 등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을 보지 않는다. 관심은 영혼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인종 교회 운동 리더 중 콜 브라운 목사는 "다인종 교회로 되어지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라고 강조한다. 이제는 혼자서 게토에 갇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고립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타인종과 다른 문화를 포용하면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구현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된다.

따라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어떠한 반론이나 의의 제기 없이 다인종 교회 운동이 앞으로 미국 교회가 지향해나가야 할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교회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다인종 교회 시작과 성장은 대세가 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시대가 새로운 교회 성장 모델을 바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흑인 교회들이 강력한 다인종 교회의 선발대가 되고 있다. 1998년 13%에서, 2012년 27%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흑백이 공존하는 주일 예배 풍경이 갈수록 감소될 정도로 흑인 타인종 교회들은 현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결국 다인종 목회 리더 중의 한 사람인 마크 데메즈(DeYmaz, Mosaix Global Network)에 따르면, 2042년이면 미국은 백인이 다수였던 사회에서 소수민족이 다수인 사회가 된다. 2019년이면 미 전체 어린이 중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단연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미 이 현상은 미국 사회의 역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이민 온 사람들은 외딴 섬에서 살 듯 오랫동안 서로에게서 분리돼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팽배하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타 문화에 대한 감수성(cross-cultural competency)을 높이고, 직접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크 데메즈의 말대로, 타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꾀할 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100%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친절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해도, 또 아무리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서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언짢게 했을 때 즉시 사과하고 그 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겸허한 자세로 친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라는 환경 안에서 이뤄지면,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주 안에서의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며 함께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실현은 이때껏 교회 밖에 있던 세대들이 이에 동참할 귀중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성령으로! 뉴욕에 부흥의 역사를...

성회는 이광희 목사 사회로 여호수아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후 개회 및 대표기도 허연행 목사, 찬양축제, 대회사/개회선언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 찬양 프라미스교회 찬양대, 강사소개 이만호 목사, 설교 이영훈 목사, 통성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이영훈 목사, 찬양 뉴저지목사합창단, 헌금송 백기현 교수, 헌금기도 양민석 목사, 후원금 전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의 역사"(히 1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믿음에 대해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이다. 둘째, 믿음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일이 없고 교회가 부흥된다. 셋째, 믿음은 예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과 보혈의 피, 예수 이름으로만 나타난다. 넷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이영훈 목사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며 복음으로 남북통일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찬양은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사모합창단, 글로벌뉴욕한인목회자합창단, 여의도권사찬양대, 엔제이클래식오카리나 앙상블, LAST, 구순연 국악찬양가수, 뿔라중창단 등이 맡았다.

뉴욕교협은 후원금 전달시간을 통해 17명에게 장학금(각 1000달러씩)을 전달하고, 미자립교회 후원금으로 20개 교회에 총 2만 달러를, 원주민선교 후원금과 고려인교회 및 선교회에 후원금을 각각 전했다.

또 예년과 같이 청소년할렐루야대회와 어린이할렐루야대회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성회 첫날 강사 이영훈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대회는 둘째 날은 문석호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김홍석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찬양 뉴욕효신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이영훈 목사("은과 금은 없거니와", 행3:1-8), 찬양 여의도권사합창단, 헌금송 김영환 전도사, 헌금기도 김명옥 목사, 광고 황태연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날은 정순원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양승호 목사, 성경봉독 강현석 장로,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이영훈 목사, 헌금송 여의도권사찬양대, 헌금기도 이주익 장로, 회장인사 및 감사패 증정, 광고 김희복 목사, 찬양 어린이할렐루야대회 어린이 합창, 뉴욕크리스천코랄합창단, 축도 황동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종교적 Nones, "의미"에 굶주렸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가깝게 시작하기만 하면 이들의 출석은 다소 증가한다. 이들 중 대략 10%나 반 정도가 '가끔'과 '매해'에 출석한다."

또한 오랜 만에 한 번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믿음에 대립하는 적대적인 이들이 아니다.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짐작하건데 그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들이 거기에 닿으면, 맥키버 박사는 하는 일이나 메시지를 좀 더 진지하게 하라고 말한다.

맥키버 박사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연구를 상기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이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같은 답을 했다. 새로운 출석자들은 '교회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원했다.

맥키버 박사는 처치리더스닷컴에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배고프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들이 이런 다른 것들을 몇 가지를 시도해본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플린 임상목회 (18)

마지막 성례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성경은 두 가지 성례(sacrament),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명하였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외에 다섯 가지를 더해서 소위 칠성례를 교인의 의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례를 종부성사(Last Rites)라고 하는데, 이 성례는 대부분 종합 병원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천주교 교단은 병원의 종교 관련 연계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 병원마다 천주교 환자들을 위해 인근 성당에 전담 사제(성례 담당)와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성찬과 환우심방 담당)을 배정해 소속이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24시간/주7일/일년 365일을 천주교 신자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시 종교 유무와 교단까지 구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채플린 사무실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입원 환자들의 종교별 명단을 출력해서 일정한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는 천주교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병원 외부의 종교 단체들은 출석교인들이 입원했을 때 환자가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병실을 방문할 수 있지만, 환자나 가족이 원하기도 전에 병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기도와 성찬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교단은 천주교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 통계를 보면 아직도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환자들이 모두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고 어떤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나가며 적어도 십여 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돌보는 가족도 드물고 심지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 살다보면 교회 출석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와도 소원해져서 수술을 받거나 임종을 앞두고도 환자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채플린들은 특히 이런 환자들과 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죽음을 앞두고는 마지막 기도라도 받고 세상을 하직하고자 하는 소원을 드러냅니다. 가족들까지 참석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채플린의 심방을 받은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평안히 소천하는 일은 지치고 힘든 채플린들에게 큰 위로와 재충전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떤 형태라도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채플린에게 질문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는 환자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무슬림 회교 신자였던 어떤 환자는 일가친척들이 다 돌아간 후에 혼자 마지막 병실을 지키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몇 주 전부터 꿈을 꾸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사력을 다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제가 본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와 장소와 부모와 나라가 정해지며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인간 모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2018 베데스다 대학(원) 총 동문회 정기총회 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베데스다 대학 , 대학원 졸업 동문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 총 동문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동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26일 (월)**
1부 예배 : 저녁 6시/ 2부: 정기총회 : 저녁 7시 / 3부 :저녁 8시 저녁식사 & 친교

■ **장소 : 오직 예수 선교교회** (담임 샘신 동문 목사)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90020
(파킹은 건물 3층 이상에 하시고 파킹 fee는 무료입니다)
(Tel) 213-215-6029

■ **문의 : 562.754.2656/ 총무 :최 다니엘 (창수) 목사**
Bethesda Alumni Association
베데스다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박정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 총동문회 5882 Burnham Ave #6 Buena Park, CA 90621
Tel. 213. 327. 8095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끈질긴 불신앙의 항변

철학자이며 저널리스트인 '알렌 핑킹 그라운트'라는 분이 '잃어버린 인간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상하게도 인간은 동물만 못할 때가 있다"고 썼다. 보라!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할 때, 같은 종인 고양이로만 대한다. 고양이를 같은 고양이로 대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고양이를 죽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간은 같은 동족인 인간인데도 다른 동족의 동물처럼 죽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인간성조차 부정하는 인간의 잔악성이다. 우리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상하게도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

보시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뛰어내리라고! 자기들이 매달아 못 박아놓고 무슨 짓인가? 계속 모욕하는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주지만,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 그를 정신적으로도 계속 죽이는 것이다. 보시라! 존재차원에서 그를 짓밟는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그의 능력도 희롱한다. 남을 구원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더니 "어디 이적을 또 하나 뛰어 내리는 이적을 행해 봐라!" 그의 능력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비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나 보자. 그렇게 비난한다. 그 모든 저주와 모욕 그런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셨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병자들을 고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다. 그런 기적을 대낮에 행해 보여줘도, 그래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이적과 기사로 충분하지만 바리새인교인과 서기관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말이 뭔지 아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면 또 다른 표, 지금 보인 것 말고, 또 다른, 뭐 좀 더 화끈한 기적을 보이라고 했다. 끈질기게 쫓아 다니면서 '그러면' 믿을 것처럼 주장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뛰어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 아는 유명한 독일에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모세 멘델스존' 인데 키가 작고 꼽추였다고 한다.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그 상인의 딸 '프롬체'라는 아가씨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봤다. "아가씨, 아가씨는 결혼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럼, 하늘이 맺어주지요. 당신은 안 믿으세요?"하고 물으니 "저도 물론 믿지요. 그런데 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아가씨를 소개하면서 '네가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할 여자이다. 그런데 네가 평생 사랑해야 할 이 여자는 저 세상에 꼽추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넌 꼽추와 함께 살아야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꼽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차라리 내가 되신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꼽추가 되라.' 그래서 내가 꼽추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프롬체' 아가씨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면서 감동을 받고, 바로 이 꼽추인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했단다.

"내가 대신 꼽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죄인으로 매달리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런데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이면 "뛰어 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는가? 어떻게 거기서 또 뛰어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나를 위해 지금 찢어지는 그 분에게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짐승만도 못하게, 인간성조차 상실한 인간의 끈질긴 불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다.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의 계시 앞에 다른 기적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사랑과 희생을 이대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감격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야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최창섭 목사
(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빌립보서 2장 12-18절)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아켐피스(Thomas A' Kempis)는 1379년에 출생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원 들어가 훈련을 받아 그의 나이 98세, 신앙생활 63년째 되던 해에 죽었다.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427년에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에는 약 700여 종류의 사본이 남아 있다. 수도사들을 위한 명상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생활은 로마서(6-8장), 갈라디아서(5-6장)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지만,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함을 강조하고 있고 있다. 성화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평생의 삶의 과정으로, 구원은 순간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평생 이루어가야 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예수의 사역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바울이 그곳에 있던지 없던지, 즉 누가 보던지 보지 않든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중생은 일생에 단 한번이지만 성화는 평생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에 힘쓰라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 곧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생활도,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절제로(언어와 행동의 절제, 물질의 절제, 시간사용의 절제 등), 인간관계에서는 오래참음, 내게 해를 끼친 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13-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둘째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룩한 소원들, 즉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 구제, 전도, 선교하고 싶다"는 것들은 모두 성령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이다. 우리 마음에 이런 귀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능력을 주시어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 때, 성령을 소멸케 한다. 즉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억제하는 자가 된다(살전5:19).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 때에는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일할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육신의 노력에 근거한 봉사는 좌절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교회 내 봉사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한 봉사가 아닐 때에는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좌절만 안겨준다. 주께서 내 마음 속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들으라.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3.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흠이 없음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빛과 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책망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탄의 대상이 되면 전도문이 닫힌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범죄, 물질문제, 도박,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빠지고, 타종교로 빠져 나가며, 예수를 믿고 싶은 자들이 실망하여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2)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란 "단단히 붙잡으라"는 뜻이다. 즉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항상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나?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다스림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만 붙잡고 살라. 그리고 그 날에 바울이 주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것이 있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그의 수고를 "달음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희생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특히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라(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본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민15:1-10),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를 다 태울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 라." 우리는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들 때가 많다. 왜냐하면 조금 봉사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교회, 이웃을 섬기면 시험들 수가 없다. 이런 목회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쉬운 시대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요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결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했다면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 성숙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겠다.

josephchoi0408@yahoo.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불법 밀입국자 자녀들 처우에 대한 미디아의 왜곡된 논란과 격분된 시민들의 반응(상)

Crisis in Sussex County, Delaware: The arrival of hundreds of children to Sussex County has created a serious humanitarian situation(July 14, 2014, by Latina Lista).

미디아가 소란피우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감금 사진들의 정확성은?

위 사진은 미디어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2018년의 사진들이 아닌, 사실상은 2014년 남부 국경(Southern Boarder) 쪽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아이들과 그 아이들로 인해 더 심각해진 마약, 심지어는 성매매의 문제까지 다루었던 라티나 리스타 신문기사에 나왔던 사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의 부모들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는 "zero-tolerance(무관용)"정책에 대한 비판자들과 언론은 철장에 갇힌 아이들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것을 나치 강제수용소와 비교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미디어가 현 정부를 "히틀러"라고까지 부르며 보여주고 있는 철장 속의 아이들 사진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가 아닌 4년 전 오바마 시절 때 일어난 사진들이라는 사실이 오바마정권 당시에 항의하던 인권단체들과 그들의 이웃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밀입국한 성인을 기소하기 위해 함께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들을 개별 수용 시설로 임시 분리하게 되는데, 사실상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정책은 그동안 여러 행정부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5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했었고 현 행정부 정책과 유사하게 또는 더 심하게 아이들을 분리했으며 부시 행정부 때도 시도됐던 정책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로 구금 제도를 확장하여 많은 아이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서 감금됐었습니다(사진 참조).

그 당시 인권 단체들은 비디오와 사진들을 통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우는 아이들과 또는 여러 어른과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인권 단체들의 항의에 대해 불법으로 입국하는 가정들을 막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서 정책이 실행됐다고 주장했었고 현 행정부도 지금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오바마 당시에는 너무나도 조용하던 미디어와 자유진보주의 정치인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진들까지 바꾸고 조작하며 거짓뉴스로 시민들을 또 한번 혼돈시키며

기만하고 있다는 사악한 상황입니다.

한 예로, Diane Feinstein(민주당 상원의원-CA)는 CNN 인터뷰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사실상 오바마 시절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사람들이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지금처럼 큰 일로 취급되지 않았고, 사실상 나도 그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현 상황을) 알고 있다(And candidly, I didn't really know enough about it at the time to focus on it. I do know enough about it now").

참고로, ICE 리포트를 확인해보니, 오바마의 ICE는 2009-2012년 동안 평균 309,887명의 체포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트럼프의 ICE는 평균 139,553을 기록했습니다.

두 행정부의 정책 차이점이 있다면?

두 행정부의 차이점은 트럼프 정부는 현재 M13과 같은 매우 잔인한 갱 단체들이라든지 미국 안에서 중범죄로 기소 중인 밀입국자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아이들은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범죄 혐의 없이 보건복지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류 미디어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지난 4년간의 험악한 사진들을 찾아 마치 지금의 사진들인 거처럼 주장하고 현 정부와 대통령을 "히틀러, 나치"라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Jeff Sessions)은 부모와 자녀들이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지금의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뒷배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션 장관은 이야기하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은 미성년자와 국경을 넘는 어른들은 거의 확실히 "검찰로부터의 면제가 된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성인 이민자들의 수가 4년 만에 14,000명에서 무려 75,000명으로 500% 이상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장하고 입국하는 비율이 3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증가한 불법이민자들 중 M13, M18과 같은 잔인무도한 갱 단체들이 증가하고 그외 마약거래, 성매매거래 등등 악한 거래들이 검은 마켓에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6월 22일 국경 수비대는 카르텔 밀수꾼들에 의해 애리조나-멕시코 국경에서 108도 사막에서 죽은 채로 남아있는 57명의 중미 이민자들을 구출했는데, 그중에는 십대로 보이는 미성년 임산부와 죽은 유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매매자들에게 속아서 미국에 데려가준다는 말에 속아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이런 위험한 죽음들에 대해서는 주류 미디어가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션 장관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쉽게 들어오도록 법으로 포괄적 면책 특권을 줄 수도 없고, 장려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이민자들을 통해 미국 안에 더 널리 들어온 마약거래자, 성매매 거래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갱단으로 모으고 있는 잔혹한 M13 같은 갱단들을 속히 잡아 미국의 안전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의 부흥회에 오신 어느 강사님이 설교 중에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이새의 정식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기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양이나 치라고 하면서 다윗을 홀대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지요?
- LA에서 모 권사

A: 권사님, 이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설교자는 대중 앞에서 본문해석을 할 때 먼저 전통적인 성경주석가들의 주석을 참고하여 올바른 주해를 하는 것이 설교의 첫걸음입니다. 설교 듣는 청중도 잘 설교를 듣는 책임이 크지만 말씀을 전하는 강단 설교자도 올바른 성경해석을 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다윗은 이새가 낳은 8번째 아들 즉 말째입니다. 사무엘이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전통적인 유목이나 농경 사회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18세도 안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에서도 말째로 위치는 매우 낮았기에 다윗은 사무엘 앞에 초청을 받지 못했

다윗은 이새의 말째 적자로 예수그리스도의 혈통

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앞세우고 말째는 약간 소홀히 취급받기 쉬운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왕으로 기름 붓는 특별한 예식에 아버지도 그를 소홀히 여긴 경솔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을 무시하고 꾸짖는 내용이 삼상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친 형제가 아닌 서자에게나 할 독설을 퍼붓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말을 통해 엘리압이 얼마나 교만하며 동생에 대해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엘리압의 동생을 업신여기는 말태도를 보면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별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며 그 이유는 이새의 다른 여자 즉 서자 출신으로 추측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베들레헴의 부호였던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의 손자였습니다(룻4:18-22).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요 예수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인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신 구원자이기에 다윗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하며 메시야 관을 혼란케 하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기에 유약하고 철부지 꼬마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졌으리라 생각하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양치기를 하는 목동은 언뜻 생각하면 평화롭고 목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이나 고대사회에서는 양치기는 매우 고되고 힘들며 때로는 양들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기에 목숨마저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삼상17:34-35).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기에 운동량이 많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목동의 일이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가 작고 나약한 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야생에서 단련된 강인하고 의지가 굳센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몸집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더라도 사울왕의 발작병을 위해 궁중악사로 추천될 때에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삼상16:18)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새의 막내로 태어났으나 무용을 갖춘 그는 근육이 탄탄한 균형 잡힌 몸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최고의 교수진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서,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장,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m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푸 타이(Phu Tai)

푸타이 족은 태국과의 국경 부근, 메콩강의 동쪽 거친 언덕에 살고 있다. 이들의 사용하는 언어는 푸타이(Phu Thai)어이며, 푸타이어는 타이 언어군(Tai linguistic family)의 라오어 하위언어다. 그러나 같은 푸타이어 안에도 많은 방언이 존재한다. 푸타이어는 성조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타이어나 라오어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언어다.

타이족은 계속되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정복하면서, 10세기 이전에 많은 타이족 사람들이 태국과 라오스에 정착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푸타이족이 이미 저지대에서 고산지대로 옮겨가던 타이족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서 푸타이족은 다른 종족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피해왔다.

라오스는 역사 속에서 많은 침략도 당하고 여러 번의 내전을 겪으면서 때로는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정치적 경쟁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쟁과 식민지 경험은 크나큰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삶의 모습

푸타이족 사람들은 본래 농부로,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이 쌀농사를 짓는 계곡에서 생활하며, 라오족과 같이 계단식 논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산허리에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화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푸타이족 마을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20-30가구가 한 마을을 이룬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내에서 친족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형성한다. 만약 새로운 길이 생겨서 외부에서의 접근이 쉬워지게 되면, 전체 마을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버린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대나무로 집을 지으며, 대말 위에 고상식 가옥을 세운다. 농사를 짓는 땅과 거주지역은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 집 아래 부분에서 가금(집짐승), 돼지, 염소 등이 자유롭게 노닌다.

푸타이족 사회는 연령, 직업, 부, 거주지역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조직된다.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장인, 상인, 도시의 공무원 등보다 낮은 계층에 속한다. 성직자들은 분리된 집단이다.

푸타이족은 작은 자치 마을에서 생활하며, 대체로 각 마을은 계곡을 끼고 형성된다. 각 마을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으며, 평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푸타이족 사람들이 라오스 국민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라오스 정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별반 내지 못하고 있다.

푸타이족 결혼 관습은 이웃하는 타이족이나 라오족의 결혼관습과는 뚜렷이 구분되며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와 그 기준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종족 생활의 정상적인 규범에 반하는 법정 소송이나 이혼은 거의 없다. 타이족과의 결혼은 거의 없지만 라오족과의 결혼은 종종 있다.

푸타이족 만의 특징적인 관습과 의상들이 있다. 여성들의 의상이 특이하며, 붉은 색으로 장식한 검정 상의와 치마를 입는다. 또한 커다란 은 목걸이와 손목 팔찌를 끼는데, 이는 "흐몽족"(the Hmong) 여성들의 것과 유사하다.

푸타이족은 대개 매우 부지런하다. 여성들은 질 좋고 독특하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있는 수공 실크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짙은 갈색이나 자주 빛 바탕에 단색으로 줄무늬를 넣은 치마는 이들의 특제품이다. 여인들은 또한 이불, 숄, 베개 등에 정교한 수를 놓는다.

신앙

푸타이족은 25개의 신들을 섬기는 자신들만의 토속신앙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권적인 창조주 신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의 마을 수호신들을 따른다. 푸타이족 사람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소와 돼지의 피로 영혼들을 달래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리게 된다고 믿는다.

라오족의 영향으로 많은 푸타이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종교와 테라바다(Theravada) 불교가 혼합된 종교를 믿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 존재(영혼들)와 물체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들은 거의 모든 물체와 사람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 중 토지의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푸타이족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시급하다. 진리의 복음만이 푸타이족을 영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현재 푸타이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으며, 라오스의 푸타이족 중에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새 대법관에 캐버너 지명… 보수색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버너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낙태와 불법이민 등 쟁점 사안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9시 백악관에서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캐버너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버너 지명자를 "판사 중의 판사"라며 "동료들 중 진정한 사상적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캐버너 지명자는 예일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됐다. 2003년에는 백악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캐버너는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82) 연방대법관의 후임이다. 케네디 대법관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온 논쟁적 사안에서 소신껏 표를 던져온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캐버너 지명자는 전형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캐버너 지명자가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50) 연방대법관에 이어 이번에도 50대의 젊은 인물을 지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앞으로 수십년간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젊은 연방대법관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캐버너 지명자는 지난해 밀입국 미성년자가 낙태를 위해 이민자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캐버너 지명자는 이 판결이 "미국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들이 요구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공식 임명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에 제동을 걸 태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9월 이전에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성공회, 하나님 성 중립적 기도서 개정 논의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성공회 총회에서 하나님의 성별을 담지 않은 기도서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3일 보도했다. 4일 시작된 총회는 오는 13일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진행된다.

성공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사용되는 기도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왕'과 같이 남성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지도자' 혹은 '창조주'처럼 성 중립적인 호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기도서 개정을 요구한 윌리 개프니 텍사스 브라이트신학대 교수는 "남성이 하나님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면 (남녀) 평등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기도서에 있는 남성주의적 언어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성공회에서 쓰이는 기도서는 1979년 미국성공회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2030년까지는 현재 기도서가 사용돼야 하기에 논의가 곧바로 기도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제프리 리 시카고 관구 주교는 성 중립적 기도문이 이미 있는 만큼 기도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회에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MeToo)'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성공회는 관구별로 독립적·자치적이기에 미국성공회의 결정이 다른 나라, 다른 관구 성공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손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반(反)이민' '반낙태'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다. 특히 반이민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다 연방대법원마저 보수화되면서 미국 행정·입법·사법의 3개 기둥이 모두 '우향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슬람권 5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대 4'로 결정됐다.

하와이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을 '무슬림 테러위험국'으로 지정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바꿨다. 현재 시행되는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된 국가는 이번 판결에 적시된 5개국에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모두 7개국이다. 하와이주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민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슬람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중단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민 제한을 지지했다. 와우(Wow)!"라는 글을 올리며 반겼다.

연방대법원은 또 낙태 반대기관이 임신부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도 5대 4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 성향이 팽팽했던 연방대법원에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5대 4 보수 우위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옴 진리교 교주 23년 만에 사형집행

1995년 지하철 사린(맹독성 신경가스) 테러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신흥종교 단체 '옴 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63) 전 교주 등 총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NHK가 6일 전했다.

이들은 1989년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 살해 사건과 1995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주모자로 체포돼 2006년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아사하라 전 교주와 간부 이노우에 요시히로(48), 하야카와 키요 히데(68), 나카가와 토모마사(55) 등이다.

지하철 사린 테러 사건은 옴 진리교 신자들이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과 5개 차량에서 출근하는 승객들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고 6300명 가량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종말론을 신봉하던 이 단체의 신도들은 수차례 저지른 살인에 대해 경찰이 옴 진리교 본부를 기습할 것을 알아채고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 같은 테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악명 높은 이 사건으로 아사하라를 비롯해 옴 진리교 전 간부 등 1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하라는 재판 당시 "자신은 일체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옴 진리교는 아사하라 전 교주가 1984년 요가를 수행하는 도장(옴신선회)을 개설하면서 출발했다. 그는 이후 단체의 명칭을 옴 진리교로 바꾸면서 '일본의 왕이 돼 세상을 지배하겠다'며 종말론적 신앙론을 펼쳤다. 이들은 초능력, 요가, 종말사상 등을 앞세워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교세를 확대했다. 사린가스는 물론 세균가스와 핵무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이 단체는 한 때 신자가 1만명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中 전능신교 신자들 한국서 난민신청 급증

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현행 난민법이 난민신청 오남용을 유도하는 만큼 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6개월간 월 43만2900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더 나아가 국내 체류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허술한 난민법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난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소송만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건, 2015년 1220건, 2016년 3161건으로 폭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6년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 보고서를 내고 "남용적 난민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진정한 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적 난민신청이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통제하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제도가 근본적으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난민법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교묘하게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9일 "전능신교 신도들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다"면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반복하며 5년 넘게 체류기간을 보장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한국에도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적지 않은데 중국의 시한부 종말론 집단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도 "난민법의 맹점은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고 그 처우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전능신교 신도처럼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소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불법 난민을 받아들인 후 각종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서구의 실패한 난민정책을 한국이 답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에게 법적 지위를 주지 않고 노동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일본 사례를 참조해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능신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난민법을 악용하지 않는다"면서 "자세한 것은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알아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2017년 12월 현재 난민심사 중인 중국인은 1119명이며 대다수가 전능신교 신도다.

미-북,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북미간 인식차에 주목했다.

미 CNN 방송은 애초부터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8일 평가했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북미관계 수립을 앞세우는 북한의 입장차에 주목했다.

CNN은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에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중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공동으로 움직이고 모두 양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출국 후 외무성 담화로 비난한 데 대해 CNN은 협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모욕 또는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WP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그 자체의 부정적인 톤보다는, 북한이 핵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여느 때보다 주목할 만한 신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일방적인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대화의 첫출발로 봤다고 WP는 전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WP에 "확실히 그들은 이것을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합의 중 비핵화 일정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었고 '비핵화'는 세 번째 항목에 있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북한 담화에서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뤄두려 했다'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가역적인 조치로, 핵시험장 폐기에 비하면 대비조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그들은 핵실험장 폐기를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양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반도미래포럼 김두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 봐 왔다고 설명했다. 평화체제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폐지된 후에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여긴다고 그는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핵보유국이 그들 핵무기를 포기할 때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글로벌 무기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CNN은 두 명의 정부 관계자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준비 과정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등 비핵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4. 안조앤(1905-1997)

부모 따라 6세에 상항으로 이민, 교회 풍금 반주자로 봉사
대한여자애국단, 재미한인부인전도회 통해 구제와 복음전파
1943년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 지역전도사로 임명받아 사역

안조앤은 1905년 미국인 선교사를 돕던 김은해와 김자혜의 첫 자녀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김은해와 김자혜는 그 후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안조앤은 6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의 손을 붙잡고 미국 상항으로 이민 온다. 그 때가 1912년 6월이었다.

6개월 후 안조앤은 가족과 함께 양파와 복숭아 재배로 유명한 중가주 롬폭으로 이주한다. 아버지 김은해는 이곳 김성오의 농장에서 일하는 30명 정도의 한인노동자를 위하여 조국의 음식을 요리하는 농장의 숙수(요리사)였다. 어머니 김자혜는 매일 저녁 한인 노동자를 가정으로 초청하고,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롬폭 한인장로교 미션이 세워진 때가 1913년 2월 23일이었다. 김성오의 캠프 안에 예배당을 설비하였는데 안조앤도 본 교회 창립 멤버가 된다. 미국 북장로교 가주노회가 존 후드 라플린 목사를 파송하여 한인 미션을 설립하고 민찬호를 전도사로 파송했다. 라플린 목사는 37년간 중국에서 사역한 미국 북장로교 파송선교사였다. 교회는 1918년까지 5년간 유지됐다. 그런데 이곳은 미주 한인들의 광복군 훈련기지로도 알려져 있다.

10세던 1915년에 안조앤은 가족과 함께 새크라멘토로 이주한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수용하여 공부하는 '원룸 스쿨'에서 공부했다. 수업이 끝나면 안조앤은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 당시 1백여 명의 홀아비 한인 이주민은 한인이 경영하는 벼농장에서 노동했다.

안조앤은 새크라맨토 한인교회의 풍금 반주자로 활동했고, 본 교회에서 모이는 한인들의 모임에도 불려 나가 풍금을 반주했다.

김규현 목사가 안조앤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안조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늘 연주했다는 기억을 잊지 않았다.

1923년 안조앤은 가족과 함께 오클랜드로 이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곳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했다. 당시 오클랜드에 거주하던 40여 명의 한인은 대부분 세탁업에 종사하였고, 미국인 가정집에 '하우스 보이'로도 일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 김은해는 이곳에서 의류 가게를 했다. 1912년에 창립했지만 본 교회 교인은 20여 명에 불과했고, 담임목사였던 임정구 목사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다.

안조앤과 남편 안영호

1913년에 조직되던 롬폭한인장로교회
미션 앞줄 어린이가 안조앤으로 보인다.

초기 오클랜드교회 부인회 및 여자애국단
우편 검정색 옷을 입은 분이 안조앤의 어머니 김자혜

해리슨 스트리트에 있던
1940년대의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

안조앤실 (청년예배실)

오클랜드에 이주한 지 2년이 되던 1925년에 20세가 된 안조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촌 동생이자 운송업에 종사하던 안영호와 상항에서 결혼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항을 방문할 때마다 안조앤은 도산을 자신의 가정에서 모셨는데, 그때마다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도산의 애국정신을 배웠다. 1929년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있었을 때 안조앤은 영어가 서툴고 가난한 한인들을 위하여 자진하여 통역하고 서류작성을 도와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힘썼다.

남편을 따라 안조앤은 1928년에 나성으로 이주한다. 안조앤은 1936년에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오기까지 약 8년간 나성에서 거주했다. 오클랜드로 돌아온 안조앤은 민족 사랑을 펼친다. 1937년 12월조 국민부담금으로 남편 안영호가 2원을 냈는데 안조앤은 별도로 1원을 1938년 2월에 냈다. 1939년 5월에는 쿠바 교포 구제금으로 1원을 기증했고, 그해 오클랜드에 거주하던 최운백이 사망하자 장비의연으로 1원 50전을 기부했다.

1939년에 대한여자애국단 오클랜드 지부 임원 개선이 있었다. 이때 안조앤은 재무에 선출됐다. 회장에 안조앤의 어머니 김자혜가, 서기에 임애성이 맡았다. 대한여자애국단은 1919년에 조직되어 조국 독립, 절약으로 독립운동 후원, 국내 동포구제, 일화 배척, 독립사상 고취을 목적으로 한다.

재미한인부인전도회는 북가주 상항과 오클랜드에 재류하는 한국부인을 중심한 단체로 내지 전도사업 등에 주력했다. 안조앤은 1939년에 회원이었다. 당시 회원으로는 안조앤 등 12명이 당시 쿠바 동포 구제금을 기부했는데 그녀는 1불을 기부했다. 1942년 성탄절을 맞아 한국 광복군 위로금으로 총 200여원을 모금하였는데 이때 안조앤은 5원을 기부했다.

황사용 목사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에 부임하면서 오클랜드교회는 상항한인감리교회와 분리되었고, 별도의 순회선교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한인은 오클랜드를 거쳐 가주 전역으로 노동일을 위하여 흩어졌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한인들을 돌보는 일은 순회목회자의 몫이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순회교구 안에 있는 한인을 위한 선교 중심지였다.

38세였던 1943년 5월 2일에 안조앤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의 지역전도사로 임명을 받는다. 며칠 전인 4월 29일에 안조앤의 삼녀인 안수니가 가까스로 10대에 들어선 13세의 어린나이로 사망을 하였음으로 지역 전도사 임명과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담임목사는 태평양 전쟁에서 돌아온 박용학 목사였고 부목사는 김창수 목사였다. 노신태도 안조앤과 함께 지역전도사로 임명받았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평신도가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을 경우 지역전도사 임명장을 받는데 이 임명장이 있는 자는 지방 교회를 순회 방문하여 설교하고 인근 지역에 전도도 했다. 그런데 안조앤은 지방 교회에 순회하면서까지 사역을 넓힌 것 같지는 않다고 오클랜드교회 역사책인 "받은 은혜, 섬길 사랑"을 쓴 박규현 목사는 말한다.

1943년 5월에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박용학 목사와 1943년 10월에 부임한 김하태 목사, 1944년 2월에 부임한 김태묵 목사, 1945년 7월에 부임한 임두화 목사에 이어 1948년 11월에 부임한 김창수 목사에 이르기까지 1940년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는 해리슨 스트리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였으므로 없다. 박규현 목사에 따르면 위의 1940년대에도 안조앤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안조앤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부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 부인회를 통하여 안조앤은 "우리 동포에게 구세주의 복음을 전할" 목적을 실천하는가 하면,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힘썼다. 안조앤은 1944년에는 각지 공금으로 1년치가 되는 12원 전체를 기부했고, 안조앤이 소속한 부인회는 매년 오클랜드 지역의 뷸라 양로원의 제일 고령인 두 분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렸으며, 1946년에는 한국에 의류와 현금 100달러를 기부했고, 1947년에도 기부금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1948년에는 부인회는 특별 모금액 중 27달러를 해외선교부 여성국을 통해 한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나성 중앙일보 2002년 10월 23일에 소개한 "초기한인교회 탐방 (5)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기사에는 1971년에는 상항한국인 연합감리교회로 대부분 이적하고 노정순, 정선희, 도산 안창호의 딸(사촌 제수로 정정:편집자주) 안조앤 등 노인 몇 명만 남아 교회를 지켰다. 그 해 김창수 목사는 건강상 사역이 어려워 사임하였는데 그 때까지 안조앤은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핀 것으로 본다.

1975년에 남편 안영호가 소천 후 안조앤이 교회의 연로한 동포 여성을 상대로 10여 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것도 안조앤의 전도사로서의 사명에서였다.

1997년에 향년 92세로 소천하기까지 68년간 섬긴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에 안조앤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였고, 교회는 2층에 '안조앤실'을 마련하고 청년예배실을 조성했다.

damien.sohn@g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6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서번트 리더의 독창적 전략

모든 것 포용하고 동기부여 통해 팔로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
경청함으로 독창적 영역 블루 오션 창출해 발전시키는 리더로

권위와 자질을 갖춘 리더가 되라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목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목회자들은 격변하는 환경을 감지하는 데 자주 실패하고 있고 그 결과 교회는 늘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을 하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목회자란 누구인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목사의 신분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사의 자질의 문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도 성경이 부여한 권위를 깨닫지 못한 목사는 맹목적이며, 신분만 유지한 채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감정이입적 경청자가 되라

리더가 권위만을 내세우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대를 앞서는 리더는 준비된 리더십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가리켜 서번트 리더라고 부른다. 그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또한 팔로워(follower)들이 동기부여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다.

서번트 리더는 교회나 사회조직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감정이입적 경청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적 청취방법이란 청취자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의도와 입장을 이해하는 참다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말하는데, 현대 리더십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잔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는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진정한 리더가 되라

AT&T에서 경영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 부회장은 1936년 발표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 등장하는 하인 레오의 모습에서 섬기는 리더의 정의와 리더십의 원리를 찾아냈다.

소설속의 주인공인 레오는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하인의 직책으로 함께 순례단의 일원이 되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레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헌신적인 봉사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순례단에서 사라져 버린다. 레오는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레오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레오가 사라져 버리자 순례단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우왕좌왕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여행이 끝나고 순례단의 최종보고를 위해 감독기관을 찾은 일행은 순례 집단의 하인이었던 레오가 감독기관 최고의 지도자였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레오야말로 순례단의 정신적 지도자요 진정한 리더였던 것이다.

평생 배우고 항상 소통하라

서번트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Where three travel together, one will be my teacher). 서번트 리더는 평생 배워야 한다. 배우려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다. 서번트 리더는 설득과 대화로 일을 수행한다. 타이틀은 리더가 아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무게를 잡지 마라.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인격체로 대하라.

명령과 지시만을 일삼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리더는 항상 소통해야 한다. 서번트 리더는 시인과 배관공이 되어야 한다. 시인처럼 인생을 노래하고 자신의 꿈을 개념화해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관공이 되어 문제가 생긴 곳에서 바닥에 엎드리어 막힌 곳이 없도록 손수 땀을 흘리며 뚫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창출하는 리더가 되라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깨에 힘을 주는 보스형의 리더보다는 섬김형의 리더가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고,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 외적인 모습만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은 리더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이다. 서번트 리더는 잘 듣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청은 서번트 리더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경청을 통하여 독창적인 영역인 블루 오션을 창출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리더가 되라.

경청을 위한 리더의 전략

경청이란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지혜이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empty).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될 수 있다. 비우는 것이 경청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다. 경청이 안 된 이유는 내가 인식해온 준거 틀이 '모두 옳다' 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정해야한다(understand). 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야 한다. 이해를 뜻하는 'understand'는 '아래에(under) 서 있다(stand)' 라는 의미이다. 경청의 최종목적은 이해이다.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는 것이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끼어들지 말아야한다(don't cut in). 인간의 뇌는 1분에 500단어의 정보처리 능력이 있지만 귀로 유입되는 정보는 1분에 100단어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음비우기'에 실패하면, 귀를 통한 듣기보다 뇌를 통한 훨씬 빠른 속도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여 결국 경청에 실패하게 된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감정(emotion)을 살펴야한다. 인간이 말의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7%이고 38%는 말의 느낌을 받는다. 나머지 55%는 표정이나 제스처들이다. 감정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이해이다. 경청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맞장구(headnodding)를 쳐주어야 한다.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꺼내어 놓는다.

시대를 이끄는 창의적인 리더가 되라

서번트와 리더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개념의 단어로 여겨지는데 상반된 두 단어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경청을 통해 Blue Ocean Strategy를 창출하는 Creative Servant Leader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차고 세일

몇 주 전에 차고 세일을 했다. 15년 넘게 한 집에서 살다보니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여서 차고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 아이들이 대학, 대학원을 마칠 때마다 집으로 가져와서 쌓아놓은 책이며 옷들도 차고 구석에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옷이나 구두는 한 번씩 도네이션도 했지만 그래도 집안 구석구석 버리자니 아깝고 사용하지는 않는 물건들이 많았다. 가끔씩 부지런한 형부가 한국에서 다니러 오실 때마다 치워주면서 좀 버리고 살라고 하셨어도 버리려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성격이 깔끔한 둘째 언니가 몇 년 전에 본인이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물건 정리하려면 힘들다고 옛날 사진도 다 정리하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만 남겨 놓았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마침 방학 기간이어서 강의가 없으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마음먹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제일 많은 것이 잘 입지 않는 옷이었고 가방, 구두, 선물 받았지만 안 쓴 새 물건들, 뜯지도 않은 비디오플레이어박스 등이 줄줄이 나왔다. 일단은 차고 세일을 하고 남은 물건은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다. 15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 침대, 옷장, 냉장고 등 큰 물건들을 이사 세일 해 본적은 있었지만 막상 차고 세일을 하려니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준비하느라 새벽 세시까지 잠도 못자고 차고 세일을 하기로 한 아침, 아직 물건을 다 내어놓기도 전에 딸이 붙인 사인을 보고 차들이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

집 앞 잔디에 침대 시트를 깔고 옷가지며 물건을 쭉 늘어놓고 가격표 사인을 붙여놓았지만 사람들이 뒤적거리다 보니 물건들이 섞여서 가격도 잘 모르겠고 서로 물어봐가면서 적당히 싸게 주기도 하였다. 스포츠 백 등 Free gift로 내어놓은 물건들은 5불 이상 구입시 주기로 했지만 1불짜리 물건을 하나 산 할아버지에게 스포츠 백을 하나 드렸더니 다시 오셔서 너무 좋다고 하나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다. 아침 시간이 지나가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힘들어서 대강 정리하고 11시 정도에 차고 세일을 마쳤다. 물건 판 총 수익금이 200불이었다.

도와주러 오신 장로님 내외분도 집에서 안쓰는 남비 등 몇 가지 물건을 가져 오셔서 한 쪽에서 팔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얼마 드리고, 둘러보러 온 친구 집사님, 스낵을 싸온 친구 목사님 내외와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40불정도 남았다.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과 토요일 오전에 바쁘게 움직인 것을 생각하면 수익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일단 정리에 도움이 되었고 또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면 차고 세일이 보람 있었다.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쉬면서 앞으로 살날이 아직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제 더 자주 더 많이 나누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땅의 것들을 다 놓고 갈 텐데 이민 가방 두개를 들고 와서 35년을 살다보니 너무 소유한 것이 많아졌다. 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모여 산다는 생각도 했다.

반나절 장사를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대하면서도 사람들의 성격이 느껴져서 재미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붙여놓은 가격대로 다 주고 사가서 뭐라도 더 싸주고 싶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깎고 또 깎아서 얄미워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제일 우스운 사람은 아들이 사놓고 무슨 이유인지 안신은 새 운동화를 3불에 가격을 붙여놓았더니 그 운동화와 내가 몇 번 신고 안 신는 운동화 두 개를 4불에 달라고 깎은 아저씨였다.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차고 세일 마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30분 정도 앉아 있어서 짜증이 나서 가져가라고 주어 보낸 사람이었다. 또 한 아줌마는 1불짜리 하나를 사고는 free gift를 5개나 집어서 보다 못해 이제 그만 가지라고 원래는 5불 이상 살 때 free gift 하나 주는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

정말 별 별 사람이 다 있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착하게 신뢰하며 따라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꼬치꼬치 따지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차고 세일 하는 것처럼 사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품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실한 것 같다.

lpyun@apu.edu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어느 신문기자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250만 인구밖에 안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을 6일 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우리는 250만명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500만 명의 전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긴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 행사 때면 무교병(누룩없는 빵)을 자녀들과 함께 먹으며 고달팠던 과거를 잊지 않았기에 오늘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또다시 그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총회차 워싱턴DC에 갔다가 잠시 들린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돌에 새겨진 문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본적도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을 기립니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달려가 54,246명이 피흘려 죽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8년 전 조국 대한민국에 6.25전쟁이 일어난 지 두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매달려, 1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겸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하7:14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모국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회개했습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으로 낙동강 전선은 지켜지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절반의 땅이라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회개하고, 겸비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군들 수만명의 사상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제가 몇 년 전 하와이에 가보니, 하와이의 상권(경제권)은 일본인들이 쥐고 있지만, 법조계의 판사, 검사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들이 최초의 이민선 Gaelic호를 타고 하와이에 와서 작열하는 태양아래서 사탕수수밭 노무자로 노예처럼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며 일당 겨우 69센트를 받는 이민 개척자의 힘겹고 외로운 삶의 역경을 뚫고 조국의 광복을 일당 중 20센트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면서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조국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하와이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주에 200만명이 흩어져 4800여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에게 요셉과 에스더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68년 전 6.25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수십만의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를 방황하며 눈물 흘리던 슬픔의 땅 내 조국을, 거지처럼 세계인의 도움을 받고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던 조국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니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요,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27,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니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7,500불이 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25전쟁 후 30만의 고아가 길거리를 헤맬 때 미국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에 입양시켰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듯 그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미국에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미국 땅, 부모의 곁을 떠나 6.25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조국 땅에 피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족만큼 기도가 뜨거운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만큼 눈물이 많은 민족도 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피난 보따리 짊어지고, 자녀들을 업고 가는 긴 행렬을 TV에서 보면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긍휼이 불타오르는 것은 그것이 68년전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긍휼의 가슴을 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9번째 협력선교사로 결정한 터키의 J선교사님은 지금 시리아 난민선교를 하시면서 이레학교를 만들어 난민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J선교사님은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의 14,936명의 군인들이 와서 1,005명이 피흘려 죽기까지 싸워준 생명의 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터키 땅에 선교사로 간 것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 파송되어 우리교회 평신도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윤삼혁 장로님 말씀으로는 에티오피아가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6,037명의 왕실 친위대가 파견되었고 그중 122명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그들은 한명도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터키에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UN16개국의 나라에 사랑의 빚진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세계의 경제부국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이 미국에 오게 하셨고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의 마지막주자의 사명을 우리민족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민족이 잘 감당할 때, 강대국에 둘러 싸여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한반도를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시켜주시고 미국과 함께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복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남북통일 이루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지도자 기도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초청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지도자 기도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과 퀸즈교협(회장 오웬 윌리엄스 목사), 한인사회와 미국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이희선 목사 인도로 오웬 윌리엄스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렘33: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부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며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GER333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보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촉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에 앞서 말씀을 전한 윌리엄스 목사는 에베소서 4장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배소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전한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신다. 분열은 미성숙한 신앙 모습이다.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자"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지도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와 이만호 뉴욕교협회장 등이 기도하고 있다.

설교 후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에 대해, 진유철 목사 △세계평화와 테러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Jeronimo Jimenez목사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해, 양승호 목사 △세계선교에 대해, Joel Sadephal 목사가 각각 기도 인도했다.

또 김민선 뉴욕한인회 회장, 토비앤 스타비스키 주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테인 주의회 의원, 카맨 찰스 퀸즈노조위원장, 앤토니 앤드류 S/E퀸즈 민주당 리더, 미셸 바흐맨 의원 등이 축사했다.

이날 찰스 노리스 Jr목사와 김영환 전도사의 인도아래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제창했으며 뿔라중창단과 여의도권사찬양대가 찬양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20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국내 한인 목회자와 성도 연합" 결의

미기총 20회 정기총회, 새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이하 미기총, 회장 황경일 목사) 제20차 총회가 6월 25일부터 사흘간 달라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에서 열렸다.

총 120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와 성도의 연합 △2세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미기총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결집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전개.

또 미래 비전으로 △사무실 개설운동 △전문직 사역자 양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 파악 △50개주 교협, 목사회, 선교 단체장, 교단장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 △선교사와 선교지역과의 교류 등을 결의했다.

미기총 제20회 조직보고는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지역공동회장: 서부-민승기 목사(수석), 동부-이대우 목사, 중부-이성철 목사, 남부-나성균 목사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 △지역총무: 조흥수 목사 △서기: 김정국 목사 △부서기: 최영일 목사 △회계: 김남태 목사 △부회계: 김경열 목사 △감사: 황경일 목사, 손상근 장로.

▲편찬위원회 위원장: 윤사무엘 목사 △사무총장: 임형태 목사 △서기: 박병섭 목사.

▲전국기도연대 위원회 대표: 한기홍 목사 △사무총장: 임형태 목사 △서기: 박형우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1988년 미주 전역의 각 지역 교협회장과 각 교단장, 교계 단체장을 지낸 목사들의 친교 모임으로 시카고에서 발족됐으며 1대 회장으로 박희소 목사(뉴욕)를 선임했다.

미기총은 20년 발자취 이야기 발간을 위해 16회 정기총회에서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역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역사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역사를 정리하며, 각 지회(교협, 목사회, 선교단체)의 활동상황 및 회원들의 목회와 생활을 수록했다.

〈기사제공: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3.1운동 UN-유네스코 등재 뉴욕지부 창립

뉴욕지부장 이상호, 부지부장 박준열 안찬수 이재봉 목사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재단(이사장 김영진 장로) 뉴욕지부가 창립됐다. 이를 위해 8일 오후 4시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뉴욕지부장 이상호 집사는 "귀하고 중요한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부지부장에는 박준열 목사, 안찬수 목사, 이재봉 목사가 선임됐다.

예배는 박준열 목사 인도로 김영호 장로, 메시지 장철우 목사("그 나라와 그의 의", 마6:33), 봉헌기도 이재봉 목사, 찬양 한문섭 테너, 축도 김정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애국가 제창과 김영진 장로가 대회사를 하고, 홍보영상을 상영한 후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뉴욕한인회 설광현 수석부회장, 뉴욕평통 유은섭 선임부회장, OGKM 대표 김호진 장로, UN세계고아의날 제정 한국추진위원회 윤기 회장 등이 축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뉴욕선한목자교회에서 김영진 장로 일행과 뉴욕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음의가족' 이사장 윤기 부부와 남북한나무심기 운동(One Green Korea) 김호진 장로 등이 동석했다.

〈16면으로 계속〉

올네이션스교회가 뉴브런스윅으로 이전 첫 감사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올네이션스교회 이전 첫 감사예배

뉴브런스윅으로...한 지붕 세 교회 250명 참석

2002년 3월에 설립된 올네이션스교회(담임 양춘호 목사)가 13년간 있었던 데이톤(Dayton) 지역을 떠나 뉴브런스윅(New Brunswick) 지역으로 옮겨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첫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네이션스교회는 올해 5월에 PCN(Presbyterian Church in New Brunswick)으로부터 예배당을 구입했고 두 달에 걸쳐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드린 예배는 한 지붕아래 세 교회, 세 다른 민족이 모여 세 다른 언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드리는 아주 뜻 깊은 예배였다. 특별히 1752년에 새워진 PCN의 Roberta Kearney 목사는 축사 중에 '올네이션스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한 것은 자신들의 함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었다고 말했다.

키어니 목사는 "요즘 한참 재개발이 진행 중인 뉴브런스윅 지역에서 교회가 주차장이나 사업장으로 팔리지 않기를 기도했고 예배당 건물을 내어놓았을 때 올네이션스교회가 처음으로 방문하고 구입하게 됐다"며 감사하며 축복했다.

또한 스페니시교회(Iglesia Jesus Cristo Reina)의 Rev. Ricardo Figueroa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참여해 이전예배를 축하해 주었으며, 교회 이전 주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자신의 교회가 이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예배 때는 전체 찬양팀과 댄스 팀이 함께 해 예배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기도 했다.

이전 감사예배는 담임 양춘호 목사의 인도로 빅터 김 목사의 기도, 교회학교 어린이의 특송, Rev. Kearney와 Rev. Figueroa의 축사, 스페니시교회 특송, 양춘호 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서로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세 언어로 진행됐다.

올네이션스교회 새 주소는 100 Livingston Ave. New Brunswick NJ 08901 전화: (732)448-9632 http://www.anmc.us/

〈기사제공: 올네이션스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제 3회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 3회 한국 CBS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 진출을 위한 복음성가 경연대회(뉴욕라디오코리아 주관, www.nyradiokorea.com)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열린다. 응시자는 개인과 단체 각 5분미만의 기성곡 혹은 창작곡을 녹음(MP3, or MP4)해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내야 한다. 참가비는 50달러. 1등 수상자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 및 트로피가 증정되며, 한국 본선 1등 수상자에게는 5천 달러와 CCM가수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 본선은 10월 6일(토) 오후 5시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몰 누리홀이며 예선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인과 단체 각 6명(팀)을 선발한다.

▲문의: (718)358-9300(#159)

제 3회 "주 예비하신 집"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가 기획하는 릴레이 홈 테마 콘서트 "주 예비하신 집" 3회가 7월 14일(토)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웨체스터(651 Ashord Ave, Ardsley, NY 10502)에서 열린다. 초대손님으로 이광선 정인영 찬양사역자도 공연한다.

▲문의: (646)258-4161

스마트폰 80기 무료강좌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80기 무료강좌가 7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열린다. 강의 장소는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등록비 10달러. 강좌 이후에 더 배우고 싶은 앱이 있으면 전화로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은 1시간에 30달러, 30분에 15달러. 또 5달러에 강의 DVD도 제공받을 수 있다. CBSN 방송선교회원은 무료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8)414-4848

친구들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열린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총6회

뉴저지한인목사회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

뉴욕교협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총 6회의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26일 4차 준비기도회는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롱아일랜드지역에서는 7월 1일, 그리고 5일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마지막 기도회가 열렸다.

4차 준비기도회는 빈상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 성경봉독 이계훈 장로, 특송 이희상 장로, 설교 문석호 목사, 특별통성기도 박마이클 목사 이주익 장로 박진하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송병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보라, 지금은...."(고후6: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시대지만 사회적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의 말씀에 충실해서 이방의 빛을 세우는 이민목회자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6차 기도회는 지난 5일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전광성 목사 인도로 기도 권금주 목사, 설교는 최창섭 목사가 했음 특별통성기도(한준희 목사, 송윤섭 장로, 윤오성 목사, 양승호 목사), 허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최창섭 목사는 "기도응답의 큰 일들"(삼상7:5-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삼상 4장에서 이카보드의 시작이 7장에서 카보드로 바뀌었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어떻게 해야 카보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첫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한다. 둘째, 함께 모여야 한다. 셋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준비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며 "준비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강사후원금에 대한 루머를 해명하고 "주시면 받지만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극동포럼,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지난달 27일 미동부극동포럼(회장 박선양) 회원들이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박성원 목사 사회로 이영만 목사(사무총장)의 기도 후 고문 방지각 목사가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본문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후 박선양 장로가 박성원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 목사는 "뉴욕나눔의집은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미주한인사회에 노숙자와 중독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립과 재활이 되도록 돕고 있다"며 "비영리기관에 동포사랑 나눔 실천으로 교회들과 각 기관 단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적극 후원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교협과 두 바퀴로 최선 다하겠다"

뉴저지한인목사회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 제 9회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나브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에 부회장 김종윤 목사가, 부회장에 유병우 목사가 선출됐다. 또 감사는 김정문 이병준 목사가 유임됐다.

신임회장 김종윤 목사(예수드림교회 담임)는 "뉴저지목사회가 9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 주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대 회장님들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정치색 없이 교협과 두 바퀴를 이뤄 잘 협력하며 회원확보와 목회에 도움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홍인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주헌 목사,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유재도 목사, 광고 홍인석 목사, 축도 이우용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재도 목사(직전회장, 땅끝교회 담임)는 "두려워하지 말라"(수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설교로 과연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본문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요청했다.

유 목사는 "목회를 아무리 오래해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교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셋째, 동역의 신앙"을 강조했다.

2부 정기총회는 박근재 목사 기도후 외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신회원 가입인준, 전회의록 낭독, 회칙수정 및 개정, 사업 및 행사보고, 산하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신임회장 취임 및 신구임원 교체, 안건처리, 폐회 동의 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회원은 총 11명이 가입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일(오늘의목양교회), 송재현(뉴저지주사랑교회). 김재열(Red Rock Church), 백경명(뉴저지영생교회), 송호민(한성개혁장로교회), 김영록(YMAM PAP Haiti), 김준남(그리스도생명교회), 오대석(엘림선교회), 김동욱(복음뉴스), 김보라(뉴저지벧엘교회), 김동건(새사람교회)(이상 목사).

회칙개정은 1년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

감사보고는 김정문 목사가, 회계보고는 박영주 목사가 각각 보고했다.

8회기 뉴저지목사회 재정은 수입 20,599.29달러, 지출 9,402.12달러, 잔액 1,337.17달러로 보고됐다.

8회기 뉴저지목사회는 5회의 세미나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포럼, 뉴욕목사회와 탁구대회, 목회자 자녀장학금 수여, 남성목사합창단 연주회, 미동부 4개주 체육대회 참가 및 야유회 그리고 원로/증경회장 오찬초대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9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6일 새소망승리교회에서 6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10월 과테말라 단기선교 준비와 2018년 상반기 회계보고를 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월례회로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밖에서의 사역 즉, (아동)후원자를 찾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홍보를 위해 본 기구의 "웹사이트(breadngospel.org)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기"를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설교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인도 전희수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새소망승리교회 담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4:19-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이며 둘째, 영으로 예배하는 자 셋째,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12년을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선교도 6번이나 다녀온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를 봤다"며 "하나님은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전희수 목사의 사역보고, 권금주 목사의 회계보고, 이찬양 간사의 광고, 김사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1-5월 회계는 △일반회계 수입 8,934.58달러, 지출 3,719.60달러, 잔액 5,214.98달러. △아동후원은 9,1110달러 송금(4월18일), 잔액은 5,041.31달러가 남았다고 보고했다.

2018년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단기선교(10월 1-5일)에서는 부뚜막&화장실(1가구당 제작비 700달러) 제작을 지원하며, 지난해 지원한 7개 중 1개의 부뚜막&화장실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고 이찬양 간사는 밝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주요 사업은 아동후원으로 현재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 아동당 후원비는 월 30달러. 자세한 문의는 (917)862-0523(회장), (646)270-9771(사무총장), (917)656-0176(간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여름방학시작 VBS와 함께!

퀸즈장로교회 VBS 첫 시간에 참석 어린이들이 교사의 인도에 따라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연인원 800여명 참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영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 6월 28일부터 사흘간 "Shipwrecked"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영유초등부가 모두 참여한 VBS로 사흘간 연인원 800여명이 참석하는 열기를 보였으며 교사와 자원봉사자들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총책임자 이명옥 전도사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VBS'라는 개념으로 준비했다"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예산을 초과했지만 후원 또한 많아 다 충당됐다"고 밝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했다.

유초등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영,유아부는 30일 하루만 진행됐다.

첫 시간에는 모두 모여 찬양과 말씀을 듣고 각자 반으로 흩어져 공과공부와 크래프트, 게임 등을 했으며, 여러 기구를 이용해 야외활동을 즐기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Love NJ가 주최한 연합VBS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Love NJ 연합...21교회 130명 참석

목회자가 연합해 영혼구원에 힘쓰는 Love NJ가 주최한 어린이연합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레오니아UMC 교회에서 열렸다.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CSO(Church Support Org.)와 CEF(어린이전도협회) 스태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21개 교회의 어린이들과 유스들이 함께 이번 연합여름성경학교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더욱이 영유아부(3-5세)와 아동부(1-5학년)로 나누어 열린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총 21개 교회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스텝들이 한마음을 이뤄 "Shipwrecked"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참석교회는 은혜와사랑교회, 호산나교회, 유영교회, 함께지어져가는교회, 임마누엘교회, 길교회, 그레이스벧엘교회, 임마누엘뉴욕교회, 하늘샘교회, 예인교회, 하늘소망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시나브로교회, 그레이스장로교회, Christ Community Church, Grace Church, KCCNJ, C.S.O 등.

〈기사제공: Love NJ〉

샬롯장로교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참석자들과 교사, 헌신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샬롯장로교회, 에티오피안 교회와 함께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매년 주최하는 여름 어린이성경학교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이번에는 샬롯장로교회 예배당을 임대하고 있는 엘카봇이벤젤리컬처치(에치오피안 교회)와 함께 진행해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매일 오후 5시에 모여 식사를 한 후 찬양을 드리고 세 그룹으로 나눠 공과시간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크래프트를 통해 실제 손으로 만지고 만들어 교훈을 실감나게 공부했다. 마지막 팀은 야드 활동을 통해 친교를 다지고 단합하는 훈련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파선된(Shipwrecked) 인생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매일 실감나게 배우고 모든 파선된 인생의 절대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시간을 마련했다.

23일 토요일에는 파크에서 야외활동을 하고 돌아와 푸짐한 식사를 즐기고 맨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불우한 이웃과 북한 동포를 돕는 헌금을 했다. 적은 정성이지만 어린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교훈의 시간이 됐다.

이번 성경학교는 총책임자 정준승 목사의 지휘 하에 노태훈 집사가 부지휘를 맡았으며, 에치오피안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여해 철저히 준비했다.

예배 메시지는 곽선신 전도사가 전했으며 저녁식사는 여전도회 특히 교육위원장 전오현 장로 부부의 철저한 헌신으로 맛있게 준비됐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커뮤니티를 존중하라'

LA 한인타운 홈리스쉘터 반대 7차 집회

'노숙자 임시 쉘터 조례안 저지 7차 시민집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윌셔와 벌몬트 교차로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풀뿌리 시민운동 모임인 윌셔커뮤니티연합(W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전날 LA시의회가 LA 한인타운 임시 쉘터 조례안을 1차 전체 표결에서 승인한 것은 유권자와 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허브 웨슨 LA시의장이 기존 추진안을 수정했지만, 결국 한인 타운만이 아닌 '10지구 전체에 걸쳐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근본적인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커뮤니티를 존중하라' '웨슨 주민소환(RECALL WESSON)' '웨슨 탄핵(IMPEACH)' 등 구호를 1시간 30분 동안 반복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베니스비치 임시 쉘터 반대위원회(Fight Back Venice), 링컨하이츠 보호연합(CPLH) 관계자, 인권변호사 등이 무대에 올라 연대를 강조했다.

이들은 2만 명이 넘은 LA시 노숙자 문제의 책임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릭 가세티 시장 취임 이후 시정부와 시의회가 각종 난개발을 승인해 저소득층을 거리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한인타운 홈리스쉘터 반대 7차집회가 윌셔블러버드와 벌몬에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열렸다

크리스탄 리 베니스비치 쉘터 반대위원회 공동대표는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실태를 보면 다른 도시는 노숙자가 줄었지만 유독 LA만 늘고 있다"며 "LA시정부가 (노숙자) 정책 실패를 하고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님비(NIMBY)라고 한다. 모욕이고 우리는 화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인 레오 테럴은 "허브 웨슨 시의원은 한인타운을 존중하지 않은 채 주민을 갈라놓았다. 임시 쉘터는 10지구 전체를 놓고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아 선정해야 한다. 한인타운에서 이득만 챙긴 웨슨을 당장 주민소환(recall)하자"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의원 출마자로 LA 타임스 전면광고로 7차 시민집회를 알린 박영선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다분히 LA 한인타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한인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부에나파크 한인사회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셔커뮤니티연합은 시민집회와 별도로 웨슨 시의장과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한인 타운내 홈리스쉘터 설치를 반대하기위해 모인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인커뮤니티를 무시하고 이일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 말하며 "허브웨슨 시의장의 방식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일을 위해 교계가 나섰으면 좋겠다"며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이슈인 만큼 목회자들이 예배시간에 한인타운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교인들과 함께 가졌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긴급히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브리지 홈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인사회 주요 6개 비영리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허브웨슨 LA시의회 시의장이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인 6개 비영리단체 홈리스 쉘터건립 지지

"열린 마음으로"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 참석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긴급히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브리지홈이니셔티브'에 대한 한인사회 주요 6개 비영리단체들이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 시설 설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이웃케어클리닉(KHEIR) 한인가정상담소(KFAM),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민족학교(KRC) 등 6개 주요 한인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지난 6월 28일 KHEIR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 시정부와 시의회가 노숙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 시설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한인타운 커뮤니티가 LA시의 버몬트+7가 부지 노숙자 시설 건립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강행됐기 때문'이라며,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허브 웨슨 LA 시의장이 한인타운 부지만을 명시한 10지구 노숙자 시설 설치 조례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한인 단체들과의 중재 협의에서 한인타운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려해 타운내 노숙자 시설지지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허브웨슨 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벌몬트와 7가에 세우려고 했던 홈리스 쉘터건립 추진계획 발표에 대해 사과하며 한인타운은 물론 10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쉘터 설치를 위한 주민공청회와 워크샵 등을 시행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웨슨 시의장은 10지구 내 설치하게 될 시설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쉘터 선정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인커뮤니티가 홈리스쉘터 설치에 대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타 커뮤니티 역시 쉘터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홈리스쉘터 설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LA의 모든 곳에서 쉘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커뮤니티에 쉘터 설치를 한다는 것은 LA의 문제해결을 한인들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LA에서 한인들이 리더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은 홈리스들 중에는 렌트비를 마련하지 못해 거리로 나와야 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이 쉘터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기금모금 행사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39지구 본선에 진출한 영 김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 행사가 지난달 29일 아로마 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 김 후보는 지난 예선에 보내준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영 김 후보는"아무래도 11월선거가 예비선거보다는 쉽지 않다. 많은 한인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킥오프를 준비했다"며 "연방하원위원을 함께 만드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예비 선거를 위해 교계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다"며 "11월 선거 당선을 위해 교계가 유권자등록 홍보 등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박준호 기자〉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 건국 70주년 기념 로스엔젤레스 포럼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건국7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포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 회장 최학량)는 6월 30일 오전 10시30분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건국 7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포럼을 "아!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역사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차장(차관급)을 지내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본부의 신철식 회장이 포럼에서 강연했다.

신철식 회장은 "미국과 UN을 권위 있게 다룬 이승만의 리더십은 청빈한 국제적 리더십이고 국제관계 설정에서 리드하는 주도형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는 경제와 자존심과 미래전략성과 경제적 과학성, 인물구축성을 함축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삼도 이상의 인사와 최학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혜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장로중창단이 찬양을, 김평우 변호사가 축사를, 문무일 상임이사가 강사를 소개하고 이기홍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소망소사이어티, 퀸즈장로교회서 171차 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15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제171차 소망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한인간호사학술대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유분자 이사장과 에린 김 사회복지사 강사로 참여했으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 를 주제로 강의했다.

소망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소망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뉴욕 지역에서도 소망소사이어티와 같은 사역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20여 명이 별도로 모여 내년에 소망 지부를 세우는 계획을 논의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소사이어티 제171차 소망교육세미나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강의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나성영락교회 통일선교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통일선교세미나를 14일(토) 오전 8시20분부터 10시까지 본교회 친교실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기독교인의 준비'라는 주제로 갖는다. 본교회 북한선교팀과 갈렙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김의혁 목사(전 하나원 하나교회 담임).

▲문의: (818)271-1032

제8회 사모블레싱 나잇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제8회 사모블레싱나잇 행사를 17일(화) 오후 6시 30분 미주비젼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번 CTS America와 교협이 함께 주관한 미자립 교회후원을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를 통해 얻어진 후원금과 수익금 6000불을 약12개의 교회에 나눌 예정이다.

▲문의: (213)255-0296 박재만 목사(기획담당 부회장)

제 7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제 7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미주성경적상담학회 주관으로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주강사는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 성경적상담학회 회장)이며 강윤경 박사(롯데월드타워 상담센터장, 나사렛대학교 외래교수), 박병근 목사(향기나는교회 담임)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문의: (714)864-7540

동양선교교회 설립기념 박종호 찬양간증집회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설립 48주년 기념 박종호 찬양간증집회가 18일(수) 저녁 7시에 열린다.

▲문의: (323)466-1234

조혜련 집사 초청 특별금요집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초청 특별금요집회를 '유쾌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20일(금)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23)225-9191

라팔마연합감리교회 2018 부흥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는 2018 부흥회를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라!'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13일(금) 저녁 7시30분, 14일(토) 오전6시, 오후 6시, 15일(주) 오전 11시30분.

▲문의: (714)226-0300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15일(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731-7724

윌셔연합감리교회 미국회중 88주년 설립기념예배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미국회중(MEM) 설립 88주년 기념예배가 15일(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PCA) 한인서남노회 소속 인랜드교회는 5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국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상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목회한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자로 미국장로교(PCA) 한인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가입이 가능한 미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www.inlandchurch.org에서 다운로드),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목회계획서, 목사안수증명서, 최종졸업 및 학위증명서, 1년 이내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및 영어설교 1편, 한글본인소개서, 3명 추천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inland Church(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문의: (909)622-2324, 622-9681

갈보리믿음교회 은혜로운 찬양의 밤에서 강진웅 담임목사가 출연자인 알리 자매와 나윤권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 은혜로운 찬양의 밤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은혜로운 찬양의 밤' 콘서트를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갈보리믿음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강진웅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찬양의 밤에는 가수 나윤권과 알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찬양과 자신의 히트곡을 불렀다. 알리 자매는 "저희교회 예배특송과 찬양집회 특송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곳의 무대는 특별한 거같다"며 "오늘은 공연을 하기위해 참석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한교총-다 양보, 한기총-더 낮아..., 한기연-다 내려...

한목협수련회 '남북화해시대 교회 연합' 의지

교계 연합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관계자들은 3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주최한 수련회에 참석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자"고 다짐했다.

'남북 평화시대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이날 수련회에는 분열된 한국교회가 남북 화해시대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쳤다. 이성구 한목협 대표회장은 "나눠진 교회 연합단체들이 조속한 시일 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속한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연합 없이 민족 통일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2부 발제자로 나선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무총장 역시 "한국교회가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해 하나 되는 연합운동에 힘쓰고 하나의 북방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연합기관의 난립을 벗어나 대연합을 구현해야 한다"며 "대연합은 공교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 총무이기도 한 변 사무총장은 이후 진행된 교계 연합 기관장 토론회에서 "연합을 위해서라면 (한교총) 이름도 내려놓겠다"며 "적극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협조해 하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연의 최기수 목사 또한 "다 내려놓겠다"며 "한기총, 한교총 등 2개 기관과 조건 없는 연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황덕광 목사는 한국교회의 분열 역사를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한기총도 내려놓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낮아지도록 몸부림치겠다"고 했다.

이들 세 기관의 연합 얘기는 올 들어 꾸준히 나왔다. 지난 5월에는 각 기관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여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함을 깊이 자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2020 F.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 발대식

대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 열정 회복 계기로"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칭)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서울·경기 지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발대식에서 대회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한 전도 집회로서의 페스티벌'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현장을 찾아와 결신하게 하고 한국교회가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아시아총괄디렉터 채드 해몬드 목사는 "세계 각국에서 집회를 개최해 오면서 사람들이 운집하는 규모에도 놀랐지만 성령님께서 그 도시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집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됨은 물론 한국교회로부터 BGEA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확인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사전대회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여성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 다음 달 중순까지 위원회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생·청년분과위원장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를 통해 연합운동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목회자를 시작으로 각 분야 지도자, 평신도 공동체에 페스티벌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행사 뒤 복음을 접한 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교단도 이슬람 시각 바뀐다

배척→복음화 대상…예장합동 총회이슬람대책아카데미

"이슬람을 무조건적 배척 대상,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편견 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도록 '열린 마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2018 총회이슬람대책아카데미가 개최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만난 노태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이슬람대책위원장에게선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다. 예장합동은 한국교회 안에서 보수적 신앙을 강조하며 타협보다는 시대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 정체성을 고수해 왔다. 이슬람에 대한 대응에도 그 기조가 반영됐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이슬람대책위 조직을 결의한 후 대책위의 연구 및 세미나 활동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노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로 인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음을 느낀다"며 "아카데미가 이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에선 현지 이슬람 전문가들이 잇따라 강단에 올랐다. 이집트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41년째 사역 중인 김신숙(69·여) 선교사는 '이슬람의 현실과 선교적 대안'을 강의주제로 택했다. 그는 "최근 젊은 무슬림들은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며 세속화되는 경향, 서방과 기독교 문물을 철저히 적대시하는 원리주의자들로 양극화돼 있다"며 "이슬람국가(IS)의 출현과 내전,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한 무슬림 간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무슬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무슬림이며 증가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난민사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선교사는 지난 2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난민사역포럼 현장을 소개하며 "무슬림 난민 중 다수가 무신론자로 전락하거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민족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이 땅을 찾은 이들의 다수가 이슬람권에서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존을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등단한 강사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영국에서 무슬림 전도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란 출신의 아즈베리(가명) 목사였다. 그는 "알라가 명령한 대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다 1997년 영국 유학시절 기독교인인 아내를 만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이맘(이슬람 지도자)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타락해 성경을 부패시켰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었다"면서 "이를 아내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즈베리 목사는 "많은 사람이 '알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神)'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며 알라는 '이슬람의 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원론에 대한 차이도 짚었다. 그는 "이슬람교에선 알라를 위해 거룩한 전쟁(지하드)을 하지만 기독교에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신다"면서 "이슬람교에선 천국에 가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는 만 15세까지 기다려라?

영아에게는 세례…예장통합 공청회서 논의

영아세례는 가능한데 아동세례는 안 된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한국 주요 장로교회의 현실이다. 만 0-2세 아기를 지칭하는 영아는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을 수 있으나 3-14세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세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 성만찬에도 끼지 못한다. 소외감이 상당하다. 어린이들은 만 15세를 넘겨야만 신앙고백 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 주최로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모든 어린이에게 세례를!'이란 구호가 내걸렸다. 공청회에서는 어린이에게 특별히 세례를 주지 않을 성경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미국 영국 독일 장로교들은 물론 국내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에서도 아동세례가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됐다. 유아세례와 아동세례를 구별하지 말고 전 연령대에 세례를 주어 단 한 명이라도 복음으로 이끌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양금희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먼저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아는 아기란 뜻으로 만 0-2세를,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는 3-6세로, 아동은 초등학생인 7-12세로 본다고 했다. 어린이가 좀 모호한데 청소년기 이전의 만 12세 이하를 통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동복지법에선 18세 이하 미성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양 교수는 '아동'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성경에는 아동세례에 관해 직접적 언급이 없으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박경수 장신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마태복음 19장 13-14절의 "그때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유아와 아동들이 세례와 성찬의 복된 자리에 오는 것을 금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교회학교 침체에 따른 현실적 이유도 추가됐다. 서울 온무리교회 조용선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에 보고된 교회학교 교세 현황을 소개했다. 2000년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총 60만1822명이던 학생이 2016년엔 38만1809명으로 줄었다. 조 목사는 "한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면서 "교단 헌법을 근거로 만 15세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의 뜻에 맡기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만 15세 이상으로 세례 나이를 제한하면 오히려 자녀의 자유의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목사는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가 함께 서로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서 한국교회 위기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전공 교수 담임목사 청빙 확산

성도들, 말씀 위주 지적 설교 갈망으로

신학 전공 대학교수를 일선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을 넘기면서 개척이나 부흥을 중시한 전임 세대들이 물러나고 후임 목사들은 교회를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신학적으로 성숙을 추구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말씀 위주의 지적인 설교를 바라는 성도들의 갈망도 교수를 목회현장으로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 소망교회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둔 김지철 목사 후임으로 장로회신학대(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인 김경진 목사를 청빙키로 최종 의결했다. 김지철 목사 역시 2002년 소망교회 청빙 이전인 1977년부터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강의한 교수 출신이다. 신학대 교수들이 대를 이어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된 경우다.

지난해 은퇴한 서울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도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 출신이며,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역시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 교수로 활동했다. 담임목사로 교수를 청빙하는 경우는 장로교뿐만이 아니다. 서울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2016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학 때 섬기던 모교회로 돌아와 목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역시 2004년 서울신학대 기독교윤리학 교수에서 목회자로 청빙된 케이스다.

교수를 목회현장으로 불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지적 갈망이다. 박노훈 목사는 2일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가 몰려 있는 신촌 대학가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성도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198명이고 총장이 4명이며 부총장도 다수"라고 말했다. 학습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더 완성된 설교를 원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교수에서 목사로 소명을 받은 건 아니다. 이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라며 "다만 사역현장이 대학에서 교회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은 원래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성서학 예배학 교회사 등은 설교나 성경공부 등 교육적 특성이 강한 목회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신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학문이고 이는 결국 목양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선 목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기채 목사는 "지역 교회가 처한 현실 사회의 갈등 문제, 교인들, 교회 전통 등에 대해 자칫 소홀해선 안 된다"면서 "성도들이 처한 삶을 충실히 파악하는 것이 교수 출신 목회자의 첫째 과제"라고 조언했다.

"古語는 총대 전유물 · 세대 간 불통"

100년 넘은 교단총회 9월 시즌 앞두고 "순화" 목소리

9월이면 주요 장로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연다. 한 해 살림을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정기총회는 교단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총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고어(古語)가 많다. 다음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선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용어를 쉽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건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다. 지금의 회의용어는 총회 대의원(총대)들만의 전유물이 됐다. 이질감을 주는 용어는 도처에 널려 있다. 우선 정기총회에서 다뤄 달라고 노회들이 상정한 회의 안건인 '헌의'만 해도 조선시대 때 쓰던 단어다. '윗사람에게 아뢴다'는 뜻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노회 형태로 있던 1909년 '예수교장로회조선노회' 3차 회의 때 처음 등장한 후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촬요'도 낯설다. 주로 노회가 회의를 마친 뒤 총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촬요라고 하는데 '요점만 간추려 모았다'는 의미다. 사회에선 이미 사어(死語)가 됐다.

정기총회에 처음 참석한 신입 총대들이 낯설어하는 용어는 '흠석사찰'이다. 정기총회 개회와 동시에 총회 집행부가 직접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흠석사찰은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요원을 말한다. 용어도 어색하지만 회의장 질서요원을 총회 집행부가 임명하는 것도 구식이다.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에게만 사용하는 '증경'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증경을 모두 '전(前)'으로 바꾸기로 결의했지만 여전히 총회장에겐 증경이 따라다닌다.

회의 진행법에도 구습은 남아있다. 대표적인 게 "가(可) 하시면 '예' 하시오"다. 이 표현은 안건 토의를 마친 뒤 총대들의 의사를 확인할 때마다 총회장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거 한국말이 서툰 선교사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물어보던 일종의 확인절차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교단별로 용어를 현대화하려는 작업이 없지는 않다. 예장통합 총회는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를 두고 용어 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장고신 총회도 2015년 용어 개혁을 단행했다. '헌의'는 '상정'으로, '촬요'는 '요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시도가 교단별로 진행되다 보니 확산엔 한계가 있다. 100년 넘게 사용하던 말인 만큼 대체하는 데 어려움도 따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도를 위해선 용어 순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사회성이 없는 언어는 소통도 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도 사실 의미가 없다"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언어가 어렵고 오래된 말이라면 복음이 시민사회 공론장으로 진입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대북지원 연대체 구성 · 통일선교 전략 필요"

한교총 '대북 협력 지원 사업 회고 · 방향' 심포지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대북 협력 지원 사업의 회고와 방향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북지원 연대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은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사무총장은 1989년 시작된 교계의 대북지원 형태를 초창기(1989-1995) 확산기(1996-1999) 분화기(2000-2007) 정체기(2008-2012)로 구분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초창기 긴급구호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지원 성격으로 변화됐다"면서 "지역과 사업에서 중첩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점차 지원 주체별로 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교회가 장기간 대북지원에 참여했지만 반공시대의 적대적 대북관을 극복하진 못했다"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원칙, 통일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전략·전술이 필요한 만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지낸 양창석 선양하나 대표는 "향후 남북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 내 시장화 촉진에 따른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비즈니스 선교모델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옌볜과기대 교수를 지낸 정규재 서울 강일교회 목사는 논찬에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변화의 시대 속에 평화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적극적 교류 협력으로 평화구축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문화행사로

14일 서울광장…기도회 · 퍼레이드 등 6시간 진행

다음 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맞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반대집회는 개막식과 기도회, 퍼레이드, 문화행사 순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광장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키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나쁜인권조례 제정을 합리화하는 퀴어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가 공동으로 국민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대회사 격려사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교회 연합예배 후 대한문을 출발해 숭례문과 서울광장 광화문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퍼레이드를 펼친다.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공연도 준비돼 있다.

최기학 대회장은 "이번 국민대회는 교계 순서를 대폭 줄이고 문화행사와 축제 중심으로 개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면서 "국민대회에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사랑과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표도 "일부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며 자기 자녀에게 권하지도 못할 동성애를 남의 자식에게 권장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라는 서구의 퇴폐문화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가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위는 다음 달 8일을 '가정 성결주일'로 지킬 것을 전국 교회에 요청했다.

'성경 · 천사…' 검색 동영상이 이단 광고 · 콘텐츠

교묘하게 유혹…유튜브 등 뉴미디어도 주의보

회사원 송건형(가명·26)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수상한 광고를 목격했다. 겉보기에는 신자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담긴 교회 광고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회가 광고주였다. 송씨는 "광고를 캡처한 뒤 교회 사람들에게 알렸다"며 "기독교 콘텐츠 중간에도 이단 광고가 삽입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튜브에서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즐겨듣는 황진주(가명·54)씨도 이단 광고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황씨는 "동영상이 나오기 전 등장하는 교회광고를 클릭한 적이 있었다"며 "그 광고들이 이단일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단들의 뉴미디어 포교가 교묘해지고 있다.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것을 넘어 유튜브 광고에도 침투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단체나 교파에 대한 광고 심의는 전혀 없어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도소 선교칼럼 (4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선교 여정-조나단

"찬양 인도해 줄 형제가 필요해요." "조나단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만나본 조나단은 25세의 중범죄자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청년이었다. 살인혐의로 재판준비중이라 찬양예배 인도는 했지만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집중할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러나 몇 달 후 B동으로 이송되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고 안정감을 찾았다.

변화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최고의 성인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조나단에게 작곡과 노래를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수락하고 프로젝트에 임했다. 그의 열정과 재능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곡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재판이 있기 얼마 전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무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떡이며 동의했다. "네, 그럴 게요. 사실 형을 적게 받으려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들이 다 재판장에 소환 당해야 하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길 원하셨어요.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 되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순종했고 유죄를 인정했다. 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를 방문했다. 예상과는 달리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그가 나를 반겼다. 조나단은 남은 여생을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의 룸메이트인 아담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편지 한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무소로 옮겨가기 전에 자원봉사자와 같이 다시 조나단을 방문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곡을 불러주었는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였다. 삶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흘렀다.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감동과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힘든 감옥의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목사님, 오래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형무소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거 참 멋진 생각인데요. 아마 제일 쉬운 선교사일거에요. 선교자금을 후원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담의 어머니 편지가 궁금해서 조나단에게 읽어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때 우편물을 관리하는 우체부가 박스에서 메일을 꺼내고 있었다. 조나단은 달려가서 자기 편지를 돌려받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침 우리 엄마한테 그 편지를 보내려고 부치는 중이었거든요."

이것이 아담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담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메신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담이 예수님에 대해 그토록 겸손하고 은혜 넘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말해주었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사로 주신 그 온화한 심령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경속의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썼지요.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당신의 상급은 정말 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며 목사님의 설교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꼭 답장을 해주고 연락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십시오.

축복하며
아담의 어머니가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조나단을 파워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렸다. "목사님, 형무소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보낼 계획이에요."

이제 그는 예전의 조나단이 아니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였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얼마 전 조나단이 나에게 카열을 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세례 받았던 그가 간증을 했다.

"나는 조나단이 종신형을 선도 받았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나는 조폭의 삶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B동에서 목사님께 세례 받은 것 기억나세요?"

조나단은 떠나기 전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카열에게 주었고 그는 조나단 이름이 적힌 성경을 자랑스럽게 열어 보였다. 나는 조나단의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마침 글을 잘 쓰는 자원봉사자에게 조나단 스토리를 신문사에 써서 보내라고 했다. 어느 날 신문사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종교가 과연 재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조나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재소자들이 회심을 하고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재소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재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변화의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나단이 그 한 예입니다."

기자는 종교로 인한 재소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고 인터뷰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 교도소에도 와서 몇몇 재소자를 인터뷰했고 이미 형무소로 옮겨졌던 조나단도 인터뷰해서 그의 기사가 크게 나왔다. 후에 그가 감금돼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yonghui.mcdonald@gmail.com

中·네팔 선교 주의보…종교활동 규제 움직임

휴가철 앞두고 교회·단체 조심

최근 중국과 네팔 정부가 종교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단기선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휴가철을 앞두고 이들 국가에서 단기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록권)은 27일 중국과 네팔에서의 선교활동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 개정 이후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방법'을 이달 발표했으며 향후 '중국 내 외국인의 집단 종교활동 관리방법'도 제정키로 했다.

문체부는 "중국이 발표한 관리방법에는 장소 심사를 위한 각종 요건과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 중국 법령을 준수해 종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역시 오는 8월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체류 기간 내 선교활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중국과 네팔에 단기선교를 가는 경우 대체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관련 법안에 따르면 비자 목적 이외의 행동은 안 된다"며 "현지인에게 종교적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거나 집회하는 행동은 엄격히 통제될 뿐 아니라 잘못되면 단체로 추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무드와 관계없이 북·중 접경지역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역"이라며 "봉사나 선교를 위해 방문한다면 현지 선교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현지법과 문화를 익히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와 섬김, 예수님과 바울에게 배우자"

GMS 세계선교대회서 특강 조너선 봉크 박사

"선교기관은 인간이 만든 사회적 구조이며 그 안에서 선교사들은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는 선교의 기초도 본질도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선교사역은 조직적인 계획보다 훨씬 성육신적이며 관계 지향적입니다."

세계 선교계 거장의 촌철살인(寸鐵殺人)에 선교사, 파송교회 목회자, 선교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모인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예배당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너선 봉크(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명예원장) 박사는 'GMS 2018 세계선교대회' 둘째 날인 26일과 셋째 날인 27일 주제 강의에 잇따라 강사로 나섰다. 주제는 '선교와 섬김'. 봉크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위대한 두 선교사로 조명하며 선교현장에 적용할 교훈을 짚었다. 그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께서 만약 한국 선교사였다면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GMS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봉크 박사는 "예수님은 행정을 하기엔 서툴러 보이고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적의를 품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를 택했다"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예수님에겐 병들고 죄 짓고 비난받는 사람 등 인간의 눈엔 장애물로 여겨지는 이들이 선교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도 바울의 삶과 고린도교회에 전한 그의 서신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조명했다. 봉크 박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전 1:27)는 것을 초대교회에 알리며 스스로 약함을 지향했다"며 "선교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편안함과 특권을 보장하는 오늘날 선교기관의 정책과 전략은 십자가로부터 꽤 멀어져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GMS를 위한 제언도 전했다. 봉크 박사는 "현장의 필요와 선교사 수에 초점을 두지 말고 흔쾌히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교사 모집의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활동의 능률이나 성과를 강조하는 대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는 소외된 이들과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조언했다.

봉크 박사는 강의 전반부에 지구촌 인구성장률(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 인구성장률(0.11%),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스란히 타격을 받게 될 한국교회 상황 등 데이터도 제시하며 녹록지 않은 선교 현실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격려는 선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은 열정적 에너지, 창조적 능력의 축복을 받은 유례없는 민족입니다. 이는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0: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국청년선교운동의 역사 (상)

노봉린 박사
(AGST-Pacific총장)

미국교회 청년선교운동은 미국교회부흥 성장과 긴밀한 연결성
조나단 에드워드(1726~)-무디(~1895)...20세기 후반부터 약화

현대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부흥은 3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교회부흥은 신자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교회성장을 이루고 이어서 선교활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미국의 기독교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교회는 여섯 번의 교회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성장과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 선교운동을 열열이 해온 것을 배울 수 있다. 미국교회의 청년선교운동은 미국교회부흥과 성장과 긴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교회부흥을 통한 교회성장과 선교활동을 경험한 미국교회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교육으로 말미암아 교인감소와 선교운동 약화 상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I. 제1 영적부흥운동(1726-70)

미국 동북지역(New England)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1703-58)는 1741년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을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앉아 있던 걸상을 붙잡고 떨며 회개했다고 한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회 부흥사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70)는 보스턴으로부터 조지아 주를 방문하여 부흥회를 인도했다.

1735년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리(John Wesley)와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는 사바나 조지아(Savannah, GA)에 2년 머물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Moravian Church)의 창설자 진젠돌프(Zinzendorf)도 뉴욕 지역에서 3년간(1741-43) 선교운동을 확산시켰고 그는 모라비안 미션(Moravian Missions)을 1765년에 창설하여 226명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의 선교운동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9-47) 같은 선교사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787년부터 미국내 다른 선교단체들(Missions Societies)이 창설되었다.

II. 제2 영적부흥운동(1792-1812)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Dr. Timothy Dwight, 1752-1817)는 1795년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이신론을 반대하고 대학생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넣어주었다.

1800년부터 미국중부지역(켄터키,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에 "캠프전도집회"가 성황 했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 미국교회의 영성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806년 윌리암스칼리지(Williams College)에서 사무엘 밀스(Samuel Mills)와 기독청년 5명이 "Haystack 선교기도회"를 갖고 처음으로 미국청년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1810년 미국의 첫 초교파 선교단체인 ABCFM(American Board of Commission for Foreign Missions)이 청설되었고 보스턴에 근거를 둔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들이 중심이 된 ABCFM은 1813년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을 인도 캘커타에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1819년 17명 선교사를 보스턴에서 하와이 섬으로 파송하였다.

III. 제3 영적부흥운동(1813-46)

찰스 피니 박사(Dr. Charles Finney, Oberlin College)는 1830년대 미국내 대대적인 영성부흥을 일으켰다. 교단적으로 선교활동을 주도한 복음주의지도자들은 여러 교단선교단체들을 창설하였다: N.Y. City Missions Movement(1812), American Baptist Missionary Union(1814), General Foreign Missionary Convention of Disciples of Christ(1814), United Foreign Missionary Society(1817), Methodist Episcopal Missionary Society(1819). Protestant Episcopal Missions Society(1828), Presbyterian Missions Society(1831), Evangelical Lutheran Church Missions(1837)이 창설되었고 1830년대 첫 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미국내지선교단체(American Home Mission Society)도 1826년에 창설되어 미국 서부지역으로 이민 간 많은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IV. 평신도 영적 대부흥 운동(1857-1895)

무디(D. L. Moody, 1837-99)의 40년의 부흥집회는 750,000명에게 전도하였고 특별히 1870년대의 무디부흥집회는 유명해졌다. 1886년 무디는 헐몬산(Mt. Hermon, MA) 학생선교컨퍼런스(Student Missionary Conference)를 개최하고 251명 기독청년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었고, 같은 해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 시카고)를 창설하여 미국기독청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 미국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양성을 위하여 Baylor 대학(1845), Taylor 대학(1846), Wheaton College(1860) 같은 여러 기독교대학을 창설되었다. 기독교대학으로부터 많은 미국청년선교사가 배출되었다.

존 모트(John Mott, 1865-1955)와 로버트 와일더(Robert Wilder)가 1886년에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창설하는데 무디도 협조하였다. SVM은 1945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 선교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1920년대는 최대의 대학생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까지 SVM은 20,500명 선교사 지원자를 구하였다. 그러나 불행이도 자유주의 선교신학의 영향으로 원래의 SVM의 선교비전을 상실하게 되었다.

FISMC(First International Students' Missions Conference)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Cleveland, OH)에서 1891년에 열렸는데 참석자 558명, 선교사 31명, 151 대학교, 82개 선교단체가 동참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1880년 ISMA(Inter Seminary Missionary Alliance)가 창설되어 미국의 신학교에 선교비전을 촉진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심슨(A.B. Simpson)은 뉴욕에 선교대학 (Nyack Missionary College)을 1882년에 창설하여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1887년에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선교교단을 창설하였다.

rohonolulu@gmail.com

북한 反종교 선전물이 되레 전도의 도구로...

안전보위부가 만든 영상 속 지하교회 성도 '차덕순' 삶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 지하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북한의 '선전용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The Voice of the Martys·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남한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주민의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색출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을 비밀리에 입수해 10일 공개했다.

30분 분량인 이 영상은 '북한에서 종교를 지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종교전파를 중단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신실한 지하교회 성도 '차덕순'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때 혁명동지였던 차덕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체제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다가와 "당신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서북쪽에 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에 살고 있는 삼촌을 만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홀로 고생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영상에서는 "차덕순은 광신도가 됐고, 북한에 돌아가 북한 내 신도들과 함께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부추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돌아갔을 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수했고, 북한 보위부는 이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었다. 이때 그는 북한 당국에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는 통행허가증을 받은 그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았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여러 물질을 제공했다.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집안의 자손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렸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심지어 바쁜 농사철에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을 하며 성경공부를 했다. 결국 그는 영상에서의 표현대로 '각성한 훌륭한 군중'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 영상을 입수한 한국 순교자의소리 측은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의 목적은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담대하고 용감한 북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다. 이어 "물론 이 영상은 차덕순이 간첩이며 다른 사람을 포섭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북한 당국이 선전에서 사용하는 복음 전도에 관한 전형적인 정의"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차덕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反)종교 영상까지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순교자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북한 정부를 사용해 순교자들의 정보가 확실히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신다"고 설명했다.

폴리 대표는 "북한 보위부의 선전용 영상에서 차덕순의 결말은 로마서 8장 28절(…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 미북회담이 북한 지하교인에 어떤 영향 주나?"

네덜란드 성도들 뜨거운 관심...한국VOM 현지서 간증

남북·미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네덜란드 교회가 북한 지하교회 출신 기독교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근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귀국한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근 10년 동안 6-7차례 네덜란드를 방문했으나, 이번에 받은 관심은 예전에 경험한 것과는 달랐다"며 "작년 두 명의 북한 출신 기독교인과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는 가장 큰 행사에 600명 정도 참석했지만, 올해는 주요 행사에 1,300명 이상, 200명을 예상했던 청소년 캠프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성도들은 "남북, 미북 평화협상이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가장 궁금해 했다. 한국 VOM은 "평화협상이라 불리는 과정에 비핵화와 경제 번영보다 더 중요한 안건은 바로 박해 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라며 "이는 남한의 기독교인들도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북한 지하교인 출신 구00 자매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 강연, 교단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만남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구 자매의 아버지는 목사는 아니었으나, 한국전쟁 직전 목사와 다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난을 겪었고, 그녀 역시 힘든 삶을 살았다. 현재 구 자매는 VOM의 탈북민 UU선교학교(Underground University)에서 훈련 받고, 북한 주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구 자매는 "사람들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며 "그러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문은 늘 열려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왔고 오늘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구 자매는 "우리는 기독교 사역을 하는 데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북한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논의된 것은 북한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가 맺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과 맺는 관계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VOM은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저서 '믿음의 세대들'을 보급하고 있다. 한국VOM CEO 에릭 폴리 목사가 탈북 지하교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 북한 지하교회의 예배, 양육, 전도, 가혹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다뤘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기독경영 전략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8)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전략의 수립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기법이다. 기업의 내부적 강점(S)과 약점(W)을 외부 환경의 기회(O)와 위협(T)에 비추어 검토한다.

전략 대안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판단기준들 중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조직에 부여하는 융통성의 정도, 전략적 위험 정도의 적절성, 기업의 다른 전략과의 일관성, 조직의 사명과 장기적 목표에 전략이 합치되는 정도 등이 있다.

전략을 택할 때 일반적인 경제논리다.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조정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야 한다.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란 조직이 공유한 가치관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반영하는 조직 전략을 수행할 때 그에 합당한 조직문화가 먼저 수립되지 않고는 수행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가능한 한의 사명은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에 근거하는 목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과 기준도 이러한 목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최상위 기독교적 사명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만족과 행복, 지역 사회와의 관계, 제품의 품질, 기업의 공공이미지와 산업 내에서의 명성 등의 전략적 성과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독특한 전략적 평가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역할'이라는 기준을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

높은 이윤 보장보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신뢰해야
종업원 행복, 지역사회와 관계, 제품품질, 기업이미지...등 우선

는 기업의 이윤과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기업의 최상위 기독교적 사명(Super ordinate Christian Mission)이 가장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과 강한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과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기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전략 경영과 세속적인 전략경영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최상위의 기독교적 사명을 제일 먼저 달성하려다 보면 단기적으로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신뢰해야 한다. 장기 이윤의 평균치보다 높은 이윤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에 맞게 기업을 경영한다면 기업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1. 기독경영전략의 실행

기독경영전략을 실행될 수 없다면,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별 의미가 없 일찍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전략을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경영전략의 감독과 통제

기독전략경영의 감독과 통제는 조직 전략의 유효성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조직의 사명을 잘 달성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감독과 통제의 단계를 통하여 피드백을 받아,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포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른 대부분의 조직 통제방식과 마찬가지로 전략 평가는 (1)성과기준을 개발하고 (2)조직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준과 비교하며 (3)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략적 성과 기준은 조직의 사명으로부터 직접 도출해야 한다. 성과 기준들은 사명에 의하여 규정된 조직 목표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수익률, 시장 점유율, 생산성, 제품의 품질, 종업원의 발전 및 만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준들은 가능한 숫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할 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끄는 기업는 제품 생산의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보다 구체적인 성과 기준이 기업의 기독교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경영전략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유화로 세속화된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를 입각한 기독교적 정의가 기업 활동 및 사회의 각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치관의 형성과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경영전략은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극복과 함께 섬김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마치 예수그리스도께서 "메시야"로 오셔서 세상이 원했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어린 나귀를 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것과 같이 세상의 이윤추구와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과 오늘날의 모든 기독경영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업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바울의 찬송(고후1:3-4)찬544장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첫째, 주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예수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양자가 됐고 그의 명령만을 따르는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되심을 보여줍니다(요1:51). 둘째,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구속과 교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그 크신 자비 곧 사랑에서 한없이 흘러나온 호의입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셋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과 교통케 하심은 우리가 불러야할 영원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즐깁시다.

화 고난 속에 넘치는 위로(고후1:5-6)찬499장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넘치는 고난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5). 바울이 당한 넘치는 고난이 넘치는 위로를 가져온 경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야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6). 교회의 할 일은 어디가나 구원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언제나 고난의 통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성령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구원을 받고 확장되고 열매를 나타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셋째, 그 위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두심으로 참 위로는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배우게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수 견고한 소망(고후1:7-9)찬206장

바울은 왜 견고한 소망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첫째, 고난이 위로에 들어가는 실제 관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7). 고난 없이 위로가 없다는 바울의 경험은 구속의 대원리입니다. 구속사는 고난사이고 부흥사는 고난사입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큰 위로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둘째, 힘겨운 고난의 경험이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닻줄을 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의 추함과 무력함과 불신실과 탐욕을 버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래된 고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영혼의 닻줄을 오직 그 분에게 던질 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 기도 은사의 효력(고후1:10-11)찬475장

바울의 구속의 경험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어떤 효력을 일으킵니까? 첫째, 모든 때에 건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10). 과거, 현재, 미래에도 구원받는 효능은 오직 기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11). 말씀 위에 서있는 교회가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구원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밀실에 큰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셋째, 많은 감사로 나타나게 합니다(11). 구속의 삶의 고난과 위로와 도우심의 사역은 결국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도 감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의 목적도 감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 바울의 자랑(고후1:12-14)찬268장

세상의 처세와 달리 그리스도 안의 역동적인 생활 곧 고난 속에서 능력을 누리는 일이 바울로 진정한 자랑을 하게했습니다. 헛된 세상 자랑과 달리 성도는 이런 일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야합니다. 첫째, 거룩하고 진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진실과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둘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음을 자랑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에 일어나는 세상의 꾀는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육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제어하는 삶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기에 이루어진 일이 자기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자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벼운 자랑의 삶에서 벗어난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토 아멘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고후1:15-20)찬518장

신자란 진실한 자란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되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처음과 마지막을 언제나 아멘 곧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 그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습니다(17). 오가는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를 봅니다. 인간의 지혜나 자기의 육적 욕망 위주로 계획하지 않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계획합니다. 이것은 출발부터가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모든 말을 아멘화 하는 삶입니다(16). 이것은 성경의 모든 말이 진실된 양심의 언어인 것처럼 거기에 근거를 둔 모든 말은 아멘이 돼야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진실되어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20).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진실이 되며 진실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멘 신앙이 이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인/터/뷰 컬처앤소사이어티 대표 줄리엔 정

아름다운 문화 나눔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공연을 곁들인 인문학 강좌를 통해 한인커뮤니티에 코리언-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블루윈도우 기획자 줄리엔 정(컬쳐앤소사이어티 이벤트 프로덕션), 그는 지난 3월24일 에바다 아트 갤러리에서 '빛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와 예술을 통한 인문학 강연 시리즈 '블루윈도우'(Blue Window)를 통해 한인사회에 인문학을 통한 문화공연을 펼쳐나가고 있다.

"인문학을 컨셉으로 한 문화행사를 생각했었고 강연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문학이 유행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한인커뮤니티에서 인문학은 생소한 분야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다 공연형식의 인문학 강의를 기획하게 됐어요."

문화 예술 함께 하는 인문학 강연시리즈 '블루윈도우'
가을엔 여행 컨텐츠로, 겨울에는 파티형식 공연 기획

정 대표는 블루윈도우를 기획할 때 단지 한명의 강사가 나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는 공연적인 요소로 기획했다. 즉 공연과 함께 예술과 인문학이 접목된 공연강의형식이 블루윈도우의 특징이며 공연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루윈도우가 나올 때까지 3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말하는 줄리엔 정 대표는 블루윈도우는 크로스오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순수예술에서 사진, 클래식 음악에서 현대음악인 재즈 등 여러 장르를 함께 다루며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다보니 공연 컨셉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블루윈도우의 컨셉이 특이하다보니 공연이 세 번이나 취소가 됐어요. 공연기획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컨셉을 만들고 그것에 맞는 출연자들 섭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컨셉을 잡아도 원하는 날 출연 가능한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 대표는 2016년 4월에 가졌던 '아름다운 서부 미국을 달리다'라는 주제의 콘서트가 블루윈도우의 모태가 됐다고 밝혔다.

"블루윈도우 첫 번째 공연에 함께했던 사진작가 양희관 씨와 인공위성 출신 가수 양지훈 씨와 함께했던 '아름다운서부 미국을 달리다'는 사진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것, 미국의 팝뮤지션들의 족적을 찾아 여행하면서 만든 노래와 여행책자가 합쳐서 스토리텔링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드렸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반응이 좋았어요."

그는 여러 시도를 통해 오늘날 문화를 소비하는 자들은 단지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함께 생각하는 것까지 이어져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까지 가야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블루윈도우를 시작하면서 쇼케이스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블루윈도우를 기획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쇼케이스의 목적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자의 호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석했던 분들 중 30명 가량이 신문기사를 보고 찾아와 주셨어요. 관객분 중에 한국에서 이민온 지 얼마 안되신 분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꼬옥 잡으시고 이런 공연을 찾고 있었다며 좋아해 주시고 고마워 하셨어요."

정 대표는 미국의 특징은 주류 쪽으로 가면 전 세계의 문화의 큰 장으로 가게 되지만 정작 한인타운의 문화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과 한국의 향수병을 달래는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주류문화와 한인들의 문화를 두루 섭렵한 것을 바탕으로 한인들을 위해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바탕으로 문화공연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두 번의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는 줄리엔 정 대표는 가을에는 여행 컨텐츠를 가지고 공연을, 그리고 겨울에는 파티형식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에는 오랜 기간 여행을 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산티아고에 40일간 도보여행한자를 모셔다가 왜 이런 여행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나누는 것이에요. 거기에 플라밍고나 탱고 같은 장르로 '길 위의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겨울에는 한인커뮤니티에 소개되지 않은 빅 재즈밴드와 탭댄스 혹은 스윙댄스가 가미된 파티형식으로 공연을 하려고 해요. 단지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무용예술에 대한 히스토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인커뮤니티에는 소개가 되지 않은 것들이라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가 블루윈도우를 통해 좋은 예술문화를 한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를 나눈다면 함께한 자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인격변화도 될 것이며 이러한 좋은 문화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질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무래도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통해 접근한다면 우선은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니까요."

▲문의: (310)922-9100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부착되어 있는 한 회사 광고 글귀가 눈에 띄었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잊어지지 않고 가슴에 남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명언이다.

때로 집안 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물건들이 있다. 버리자니 필요할 것 같고, 두자니 번거롭고. 남 주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거추장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내다 버리는 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공수래공수거'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보람되게 사는 비결은 계속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는 데에 있다. 쌓아두고 모으려고만 한다면 고물인생이요, 주려고 한다면 보물인생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가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다가 죽는 다면 실패한 인생이요, 이웃을 위해 주다가 죽는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많이 벌었어도 주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하다. 그러나 적게 벌었어도 나누면서 살았다면 행복한 인생이다.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과 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명품인생, 보물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풂에 있다. 지금 당장 보물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 주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오병이어를 두었다면 오천 명을 먹이는 보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며 고물로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은 보물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열방에게 보물이 되어야 한다. 마음 판에 새기자. '두면 고물, 주면 보물'

bible66@gmail.com

〈9면에서 계속〉

이날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및 5선 국회의원)는 "3.1운동은 조국해방과 자유, 정의 확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민족의 자랑"이라며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UN/유네스코에 유산등재를 추진해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했다.

김 장로는 "여야와 지역, 보수&진보, 종교를 초월해 기념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한인들에게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 재단은 앞으로 △등재를 위한 자료준비 △3.1운동 UN•유네스코 국제평화대상 제정 및 시상 △3.1운동 UN-유네스코 장학재단 설립 및 인재 양성 △노벨 평화상 등 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하는 국제 포럼 개최로 국민 평화의식 공유 △전통문화 및 3.1정신을 살린 국악경연대회 개최(8월 4일 LA), 10월 한국 국회강당에서 음악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외에 기념관을 설립하고 동학농민혁명 후손들의 복리추진, 장학사업 확대로 민간 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김 장로는 밝혔다.

김영진 장로는 해외 동포들 중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바란다며 역사학자나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동 재단은 국회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5월 LA를 시작으로 시카고와 뉴욕, 덴버,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미주에 지부를 설립했다.

〈유원정 기자〉

바울공동체 사상과 장애인 신학
이상명
계명대학교 (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대학교 (M.A./Ph.D)
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구약에 나타난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의 신학
소형근
서울신학대학교 (B.A.)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
독일 본 대학교 신학과 (Dr. Theol.)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경적 대안모색
장승익
연세대학교 (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독일 튀빙겐 대학교 (Dr. Theol.)
현) 함께하는교회 예수마을 담임, 세계밀알연합 이사

장애인을 위한 목회상담
이경식
미국 웨스트마 칼리지 (B.A.)
미국 예일 대학교 (M.Div.)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 (Ph.D.)
현)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교 실천신학, 상담학 교수

노화로 인한 장애와 목회적 과제
김한옥
서울신학대학교 (B.A.)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독일 뮌헨 대학교 (Dr. Theol.)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세계밀알연합 이사장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장애인 선교의 통합적 이해
강원호
총신대학교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D. Min.)
현)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